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미술경영학석사학위논문

문화예술의 가치 및 효과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 지원 심의기준 및
평가기법 연구

2012 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미술경영전공
최 미 숙

문화예술의 가치 및 효과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지원 심의기준 및
평가기법 연구

지도교수 정 형 민

이 논문을 미술경영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 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미술경영 전공
최 미 숙

최미숙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월

위 원 장 _____ 정 영 목 (인)

부위원장 _____ 양 현 미 (인)

위 원 _____ 정 형 민 (인)

국문초록

공공기금 사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는 문화예술분야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공공성의 원칙과 효율성의 추구는 문화예술 고유의 가치와 종종 상충되며 이러한 딜레마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잘 드러난다. 정부와 공공기금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현실에서 문화 예술 지원의 향방이 문화예술계의 지형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종 수혜자의 입장에서 가치와 영향을 창출하지 못하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문화예술계 뿐 아니라 공공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우리 문화예술계는 자체적으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문화예술의 가치와 효과를 측정해 본 경험이 없다. 하지만 가치와 효과에 대한 입증 없이 문화예술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고 확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원사업을 개선하는 것 역시 단지 사업절차나 사업구조의 개선, 프로그램 개발의 관점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가치와 영향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패러다임 정립의 문제이다. 이 논문의 목표는 전략적 성과창출의 관점에서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심사와 평가 부분에서 가치 창출 방식을 고도화하여 문화예술을 통해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먼저 심의기준을 개선하여 가치와 효과 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선별할 수 있게 하고, 효과 측정기법을 도입하여 사업의 효과와 영향을 측정하여 사업 성과를 입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가치와 효과를 창출하는 지원사업으로 개선하여 기금 사용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대상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으로 심의와 평가 부분에서 문화예술의 가치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구조인지 분석한 후, 개선안을 제시하여 사업의 기능 및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 문화예술의 가치와 효과, 영향에 대한 국내외

선행 연구를 살펴본 뒤, 문화예술의 영향을 정리한 제시한 조슈아 게츠코우(Joshua Guetzkow)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효과를 정신 및 신체적 효과, 인지적 효과, 대인관계 효과를 포함하는 개인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 문화적 효과, 사회적 효과를 포함하는 사회적 효과로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문화예술의 가치와 효과 창출의 관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수행하는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의 심의와 평가부분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미국의 예술진흥기금(National Endowments for the Arts, NEA), 영국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ACE)의 문화예술 지원사업과 비교를 통해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이 문화예술의 가치와 효과 창출 부분이 미흡하며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5장에서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을 통한 문화예술 가치와 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문화예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심의기준안을 제시하였다. 그런 다음 지원사업에 걸맞는 정교한 평가모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평가기법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다. 특히 2장에서 논의한 문화예술 효과 분석틀에 따라 정신 및 신체적 효과는 수명가치추정법, 인지적 효과와 대인관계 효과는 관람자태도조사, 경제적 효과는 경제적 영향분석법, 임의가치측정법, 선택모형법, 여행비용측정법, 문화적 효과 및 사회적 효과는 기술기법으로 측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을 통해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도화하고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문화예술이 개인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가치와 영향을 극대화하고, 공공기금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문화예술, 지원사업, 문예진흥기금, 가치, 효과, 영향, 심의, 평가, 심의기준, 평가기법, 가치평가, 영향평가, NEA, ACE, 조슈아 게츠
코우

학 번 : 2009-21317

목 차

국문초록 표 목차

1장 서론	1
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2절 연구방법과 내용	2
3절 연구의 전제 및 한계점	3
2장 문화예술 가치 연구	4
1절 문화예술 가치 선행연구	4
2절 문화예술 효과 분석틀 선행연구	11
3절 예술의 영향 분석틀 제시 및 활용	14
3장 가치의 관점에서 지원사업 분석	16
1절 분석대상	17
2절 심의기준	19
3절 사업평가	26
4장 지원사업 해외사례 비교분석	29
1절 분석대상	29
2절 미국예술진흥기금(NEA) 분석	30
3절 영국예술위원회(ACE) 분석	36
5장 지원사업 개선방안	47
1절 심의기준	48

2절 평가기법	52
3절 향후 과제	62
참고문헌	64
Abstract	71

표 목 차

- [표1] 랜드연구소의 예술의 효과 분석틀
- [표2] 예술의 영향 분석틀
- [표3]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의 절차
- [표4]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 지원사업 심의기준
- [표5] 차세대예술인력 집중육성 지원사업 심의기준
- [표6]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심의기준
- [표7]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지표
- [표8] NEA 효과있는 예술(Art Works) 심의기준
- [표9] NEA 도전하는 미국-더 빠른 길(Challenge America Fast-Track) 심의기준
- [표10] NEA 우리 동네(Our Town) 심의기준
- [표11] ACE 지원사업 진단기준
- [표12] 예술적 효과 심의기준
- [표13] 정신적, 신체적 효과 심의기준
- [표14] 인지적 효과 심의기준
- [표15] 교육적 가치 평가내용
- [표16] 경제적 가치 평가내용
- [표17] 문화적, 역사적 효과 심의기준
- [표18] 사회적 효과 심의기준
- [표19] 게츠코우 분석틀에 따른 가치평가법 정리

1장 서론

1절 연구배경과 목적

공공기금 사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¹⁾ 이는 문화예술분야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공공성의 원칙과 효율성의 추구는 문화예술 고유의 가치를 강조할 때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0 문화예술정책백서』에서도 “국민의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위한 공공서비스는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정책기조 속에서도 문화예술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가 문화예술정책에서 보다 중요하다는 정책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²⁾

이러한 상충성은 작품 및 활동의 질을 높이고 문화예술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정부와 공공기금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현실에서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성격이 문화예술의 현재 지형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문화예술 본연의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문화예술이 개인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성과창출의 관점에서 지원사업의 기획, 심사, 성과평가 그리고 사업평가까지 가치 창출의 방식을 고도화하여 예술계와 문화예술 향유자 뿐 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1) 차의환, 『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울아카데미, 2007, 24쪽.

2) 2011년도 문화정책백서는 2012년 5월 1일 현재 발간되지 않아 2010년도 백서를 인용하였다.

과급효과를 가져오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문화예술이란 그 가치를 계량화하기 힘든 분야이기 때문에 가치를 예측하고 창출된 가치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문화예술 지원예산을 보다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여 결국 공공기금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절 연구방법과 내용

이 연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해외 사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모델로 삼았던 두 기관인 미국의 예술진흥기금(National Endowments for the Arts, NEA), 영국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ACE)를 선정하였다.

먼저 2장 「문화예술 가치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의 가치와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국내외로 나누어 살펴보고, 지원사업에 적용할 문화예술 영향 분석틀을 선별한 후, 조슈아 게츠코우의 영향 분석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효과를 정신 및 신체적 효과, 인지적 효과, 대인관계 효과를 포함하는 개인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 문화적 효과, 사회적 효과를 포함하는 사회적 효과로 정리하였다. 3장 「가치의 관점에서 지원사업 분석」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화예술의 가치와 효과 창출면에서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짚어보았다. 4장 「지원사업 해외사례 비교분석」에서는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사례와 비교하면서 우리의 지원사업이 문화예술의 가치와 문화예술 수혜자에 대한 과급효과와 관련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5장 「지원사업 개선방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심의기준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NEA, ACE 이외에도 일본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 미국 오하이오주 예술위원회(Ohio Arts Council), 뉴욕주 예술위원회(New York State Council for the Arts, NYSCA)에서 연구되었거나 사용하고 있는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2장에서 정리한 각 효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심의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런 다음 현재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살펴보고 2장의 분석틀에서 제시한 각각의 효과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평가기법을 소개하였다. 정신 및 신체적 효과는 수명가치추정법, 인지적 효과와 대인관계 효과는 관람자태도조사, 경제적 효과는 경제적 영향분석법, 임의가치측정법, 선택모형법, 여행비용측정법, 문화적 효과 및 사회적 효과는 기술기법 등으로 측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3절 연구의 전제 및 한계점

본 논문에서는 지원사업의 각 과정 중 심의와 평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지원사업의 전 과정이 사업계획의 수립 및 확정 - 지원신청 안내 공고 -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심의 진행 - 최종 심의결과 확정 - 심의결과 발표 및 지급절차 알림 - 교부신청서제출 - 보조금수령 - 사업진행 - 사업평가 - 성과보고서제출 - 정산확정통보 - 지원사업종료로 이루어지나 결국 지원처를 선정하고 영향을 평가하는 부분을 핵심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만일 지원사업 심의위원들이 심의기준에 따라 심사하지 않는다면 지원사업 심의기준을 연구하는 것은 무의미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의 일반적인 심의과정에서는 심의표나 배점표를 활용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는 심의기준 이외에도 책임심의관제나 심의평가자 선정, 동료평가 도입 등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는 우리나라 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전제했다.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사업이 1974년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우리나라 문화예술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있고, 일부 문예진흥기금의 지역이관을 실시한 가운데에서도 지역문화재단에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제

안한 평가기법을 16개 광역시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적용시킨 후 비교 분석을 수행한다면, 지역이관의 논리였던 문화예술의 수혜자 입장에서 효과 창출에 실제로 기여했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 제시한 심의기준 개선안, 평가기법을 도입하는 데 실제 지원사례를 인용하지 못했다. 제안된 심의기준과 평가기법에 따라 수행된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수행된다면 이 논문의 의미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2장 문화예술 가치 연구

2장에서는 문화예술 가치인식 제고를 위한 선행 가치연구를 살펴본다. 1절에서는 지금까지 문화예술 가치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해보고, 2절에서는 문화예술 효과 관련 분석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알아본다. 3절에서는 이를 종합한 분석들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해 본다.

1절 문화예술 가치 선행연구

1) 문화예술 가치 연구의 종류와 흐름

문화예술의 가치와 관련한 연구는 다양하다. 큰 흐름만 언급하더라도 문화예술의 본래적 가치에 대한 ‘가치(value)’ 연구와, 문화예술 활동의 결과를 다루는 ‘효과(outcome)’ 연구³⁾, 문화예술 행위의 파급

3) 효과연구는 원인과 결과를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각각의 행위의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측정이 되는 동적인 특성이 있다. (양현미, 문화의 사회적 가치: 행복연구의 정책적

효과를 다루는 ‘영향(impact)’ 연구, 문화예술이 인간에게 주는 편리하고 유익한 점을 다루는 ‘편익(benefits)’ 연구 등이 있다. 연구의 흐름이 이처럼 다양한 이유는 문화예술의 전체의 가치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각 활동이 창출하는 ‘효과’, ‘영향’, ‘편익’을 측정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⁴⁾

가치연구의 흐름을 보면, 1980년대 이전에 이루어진 가치연구는 문화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것이었다. 미적 가치와 문화를 통해 시민을 교화할 수 있다는 정신적 가치는 문화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이러한 내재적 가치만으로는 공공의 지원에 대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자 영향연구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문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으며, 문화의 사회적 연구도 확산되었다.⁵⁾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 위기 이후 공적 자금을 포함한 자원조성을 위한 노력과 신 공공경영(New Public Management)의 도입으로 사회과학적, 경제적 언어와 접근방법을 통해 좀 더 명확하게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평가(Evaluation)’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⁶⁾ 특히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가치의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영국의 경우, 1979년 보수당 대처 정부 시기부터 결과지향적 정부운영에 초점을 맞추면서 증거에 바탕을 둔 정책입안(Evidence-based Practice, EBP)으로 정량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해졌고, 1991년부터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국민과의 협약(Citizen's Charter by the Government)체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면서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발달하게 되었다.⁷⁾ 2000년대 들어와서는

함의를 중심으로, 2007, 99-100쪽에서 재인용)효과 중에서도 파급 범위가 큰 것을 ‘영향’으로, 긍정적 효과일 경우 ‘편익’으로 지칭한다. 이러한 이유로 효과연구, 편익연구, 영향연구는 가치연구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4) Randall Mason, 2002. (David O'brien, “Measuring the Value Culture Report”, DCMS, 2010, p.15에서 재인용)

5) 양현미(2007), 98쪽.

6) Bakhshi, H., Freeman, A. and Hitchen, G.(2009), *Measuring intrinsic value-how to stop worrying and love economics* (O'brien, Measuring the Value Culture Report, DCMS, 2010, p.4에서 재인용)

7) 이와 더불어 평가 만능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연구도 있었다. Belfiore,

가치를 도구적 측면에서 조명하는 이러한 일련의 연구 흐름에 반발하여 문화예술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가치를 종합해 보려는 연구가 활성화되었다.⁸⁾

문화예술의 가치 연구는 본래 문화예술계 내부에서부터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및 스위스 등을 중심으로 국가가 문화예술을 지원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 제기로 부터 시작되었다.⁹⁾ 특히 정책 분야에서 일반 대중과 정책입안가를 설득해 문화예술계 지원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정부가 예술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예술의 가치를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었다.¹⁰⁾ 그러나 1990년대 경기 침체로 인해 공공재원의 문화예술 지원 사용에 대해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자 예술이 경제 성장, 교육, 공동체 의식 향상 같은 사회적 효과를 가져 오고, 기업 유치, 관광 촉진,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고 주장을 하게 되었다.¹¹⁾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고 문화의 규모가 확장되는 선순환을 이끌었다. 이것은 예술이 도구화 되어 인식된다는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토론 현장에서 예술이 사회에 어떤 혜택을 주는지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유용한 접근 방식이었다.

반면 문화예술계는 ‘문화예술’ 과 ‘가치’ 개념 자체에 대한 일관된 합의를 만들어 내지 못했고 오히려 이러한 가치 연구 때문에 문화예술이 가진 내재적 특성보다 일종의 수단적 가치만 부각될 수 있다는

Eleonara(2004)는 지난 20년간 영국의 문화정책을 도구주의적 시각에서 비판했다. ("Auditing Culture: the Subsidized Cultural Sector in the New Public Man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10, No.2, pp.183-202. 그러나 David O'brien은 지원기관과 정책입안자는 예술 지원과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도구주의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된다고 한 바 있다.(2010)

8) O'brien, 8쪽.

9) 브루노 S. 프레이 著, 주수현 외 譯 『문화예술경제학』 (시그마프레스, 2007), 4-8쪽.

10) 국가의 경제, 정치적 역량 강화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원했다. 랜드 연구소 p.4.

11) 점차 공공분야 경영이 정량적, 증거주의 방식 위주로 진행되면서 예술이 사회의 가치 창출에 이바지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¹²⁾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예술계 내부에서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한 논의는 발달할 수 없었고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도 이미 발달되어 있는 사회과학의 언어를 빌려올 수 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도 사회에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공공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문화예술에 직접 참여하거나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도 문화예술은 존재가치, 명성가치, 교육가치, 유산가치 같은 외부효과를 낳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활용하게 되었다.¹³⁾

2) 문화예술 가치 연구

문화예술의 가치 자체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1년 호주출신 경제학자 데이비드 트로스비(David Throsby)(2001, 2006, 2010)는 문화에는 미학적(Aesthetic), 정신적(Spiritual), 사회적(Social), 역사적(Historic), 상징적(Symbolic)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¹⁴⁾ 미학적 가치는 아름다움, 조화, 형식 등을 말하며, 정신적 가치는 인류가 공유하는 내적 가치로, 이해와 계몽, 통찰을 말한다. 사회적 가치는 사회를 이해하고 정체성을 공유하게 하여 연대감을 느끼고 확산하는 역할을 하는 가치이고, 역사적 가치는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고 과거와의 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가치

12) Bennett and Belfiore, 2008. (O'brien p.18에서 재인용)

13) 이러한 가치는 비사용자 편익(non-user benefits)로 불린다. 비사용가치는 가치가 있더라도 그 측정이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이루어지고, 현존하는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이 수혜를 입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예술가의 생애 동안 평가 받지 못한 예술가 사후에 평가받는 것이 그 예이다. 또한, 자신을 위해 사용하거나, 남을 위한 것이거나 나중 세대를 위한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처럼 가치가 지연되어 나타나는 것도 있다. 그리고, 문화적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있음으로서 느끼는 존재가치 등을 말한다. 사람들이 지역 문화 기관에 느끼는 자부심이나 사람들이 문화유산이 존재함으로써 느끼는 자부심이 그것이며, 이것은 그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는더라도 중요한 가치이다.

14) 이 밖에도 트로스비는 문화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를 높이지만, 문화의 가치가 모두 실제로 금전적 가치로 산출될 수 없는 만큼, 문화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만 따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며, 상징적 가치는 대상이 가지는 의미를 담고 전달하는 것, 정통적 가치는 진품으로서의 특징, 즉 진성성과 완성성으로 그 자체로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¹⁵⁾ 트로스비의 문화적 개념은 문화가 가지는 내재적 가치를 다룬 대표적인 연구로 꼽힌다.

2004년 영국의 존 홀든(John Holden)은 가치 삼각형(Value Triangle) 모델을 통해 문화예술의 가치는 내재적(Intrinsic) 가치, 도구적(Instrumental) 가치, 공적(Institutional) 가치의 세 가지로 구성되며 이들이 합을 이룬다고 주장했다.(2004, 2006) 여기서 내재적 가치는 문화예술 분야에 해당되는 독특한 가치로 문화예술이 개인에게 주는 심미성, 개인의 즐거움 같은 가치를 말한다. 도구적 가치는 목적을 실현하게 해주는 것으로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사회를 융합하거나 경제적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을 말한다. 공적 가치는 공공적 특성을 가진 가치로 신뢰감, 자부심 등을 말한다. 존 홀든의 주장은 이후 문화예술계 뿐 아니라 정책입안가 사이에도 널리 받아들여졌다.

2) 문화예술 효과 연구

문화예술의 효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가치연구보다 먼저 시작되었다. 1988년 영국의 존 미어스코프(John Myerscough)가 예술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쓴 「영국 예술의 경제적 중요성(*The Economic Importance of the Arts in Britain*)」이 대표적인 연구로 꼽힌다.¹⁶⁾ 여기에서 존 미어스코프는 예술 분야에 대한 지출은 다른 분야의 지출로 이어지며, 결국 부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만들고, 도시를 매력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1997년에는 영국의 프랑소와 마타라소(François Matarasso)가 「효용인가 장식인가? 예술 참여의 사회적 영향(*Use or Ornament? The Social Impact of Participation in the Arts*)」에서

15) David Trosby, D.(2001) (이윤영, 『콘텐츠 산업의 문화적 가치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16-19쪽에서 재인용)

16) John Myerscough, *The Economic Importance of the Arts in Britain*, London: Policy Studies Institute, 1988.

예술이 사회적 융합, 커뮤니티 역량강화, 주체성 강화, 지역 이미지의 정체성, 상상력과 비전, 건강과 웰빙, 균형감 제공 등 사회적 효과를 창출한다고 밝혔다.¹⁷⁾ 같은 해 유럽 문화 개발 테스크포스(The European Task Force on Culture and Development)는 문화예술의 영향을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으로 구분했다. 직접적인 영향으로 문화예술이 문화산업, 미디어, 통신산업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행사 개최를 통해 소비 및 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꼽았다. 간접적 영향으로는 문화적 자부심을 갖게하고, 문화예술적 아이디어나 이미지 자체로 국가 또는 국제적 자산을 형성한다고 했다. 또한 여가 활동, 사고력 증진, 정신건강 증진, 감수성 증진, 시민정신, 창의력,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고, 미래 세대에게는 창의력과 지적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했다. 또한, 문화예술기관은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도시범죄나 폭력을 줄여준다고 밝혔다. 같은 해 아르조 클레이머(Arjo Klamer 2004)는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가 각각의 고유한 차원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¹⁸⁾ 그가 말한 경제적 가치는 가격 또는 교환가치를 말하고, 사회적 가치는 개인, 모임, 공동체, 사회 문맥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소속감, 정체성, 신뢰 같은 가치를 말한다. 문화적 가치는 미적, 영적, 사회적, 상징적, 진정성의 가치를 경험하고 체화하거나 계발하고, 이에 대한 문화사적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며, 칸트의 숭고의 경험을 대표적인 예시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각 분야에서 문화예술의 효과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분야로는 교육적 효과(Fiske 1999, Remer 1990), 경제적 효과(Costello 1998, SCDCAC 2001, Stanziola 1999, Walesh 2001, Americans for the Arts 2003)¹⁹⁾, 신체적 및 정신적 웰빙

17) François Matarasso, *Use or Ornament? The social impact of participation in the arts*, Comedia, 1997.

18) Arjo Klamer(2004),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Values of Cultural Goods, Cultural and Public Action*, V. Rao and M.Walton, Eds. Stanford University Press. (양현미, 『문화의 사회적 가치: 행복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84쪽에서 재인용)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5장에서 다룬다.

19) Americans for the Arts, *Arts and Economic Prosperity: The Economic Impact on Nonprofit Organizations and Their Audiences*, 2003.

(Baklien 2000, Ball and Keating 2002, Bygren, Konlaan and Johansson 1996, Turner and Senior 2000), 사회적 자산 형성과 커뮤니티 목표 달성(Goss 2000, Matarasso 1997, Williams 1995) 등이 있다.

4) 국내 관련 연구 현황

국내에서는 문화가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에 중요한지에 대한 연구가 강영안(1994)의 「문화 개념의 철학적 배경」, 박영은(1995) 「문화담론과 연구방법론-문화이론의 쟁점과 한국사회」에서 시작되었으나, 문화의 효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것으로 본다.²⁰⁾ 2005년 정갑영의 「문화와 사회발전의 관련성 연구」는 문화지표와 경제지표 및 사회발전지표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도출한 실증적 연구였다.²¹⁾ 2007년 양현미는 「문화의 사회적 연구」에서 문화가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는 지 밝혔다.²²⁾ 아르조 클레이머의 구분에 따라 문화의 가치를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와 복합적 효과로 볼 수는 있지만, 인간 주체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입각해서 잠재력의 육성으로서의 문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문화의 사회적 가치 개념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²³⁾ 이 연구는 문화의 다양한 개념과 함께 문화의 가치 및 효과의 다양한 분야를 제시하고, 문화의 사회적 가치 인식을 위한 보다 폭넓은 시각을 제공했다.

이윤영(2011)은 콘텐츠 산업을 대상으로 문화적 가치를 연구했다. 콘텐츠 산업은 그동안 경제적, 산업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문화적 가

20) 강영안, 「문화 개념의 철학적 배경, 한국철학회 봄 정기학술발표회, 1994, 박영은, 문화담론과 연구방법론-문화이론의 쟁점과 한국사회」, 『한국의 사회와 문화』, 23집, 정신문화연구원, 1995.

21) 정갑영, 『문화와 사회발전의 관련성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4.

22) 양현미, 『문화의 사회적 가치: 행복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23) 양현미, 「문화의 사회적 가치: 행복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치 인식 측면은 소홀했다고 지적하면서, 트로스비와 홀든의 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적 가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콘텐츠 산업의 문화적 가치들을 제시하면서 문화적 관점의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이 연구에서 문화적 가치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작품 및 문화적 현상의 존재자체가 무조건적인 고유가치 및 자연가치를 지닌다고 정의했다.²⁴⁾ 미적 가치는 아름다움, 조화, 형식적 가치를 말하고, 정신적 가치는 대중의 정서와 가치관에 영향을 미쳐 이해, 계몽, 통찰을 만들어내는 내적 가치를 말한다. 사회적 가치는 대중과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소통의 가치이고, 역사적 가치는 시대적 특성을 나타내고, 문화를 전승하는 가치이며, 상징적 가치는 사회나 국가의 정서, 문화적 특성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가치, 행복 가치는 정서적 안정과 여가와 관련된 체험적 가치라고 정의했다.

2절 문화예술 효과 분석틀 선행연구

앞서 살펴본 다양한 가치와 효과를 종합하여 2004년 미국의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는 「뮤즈가 주는 선물: 예술의 효익에 대한 논의의 틀 다시짜기(*Gifts of the Muse: Reframing the Debate About the Benefits of the Arts*)」(2004)에서 예술이 주는 효과(benefits)의 분석틀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분석틀은 [표1]과 같으며 Y축은 효과의 성격(도구적/내재적 가치), X축은 효과의 범위(개인적/공공적 가치)로 구성했다. 이 좌표에서 가장 도구적이면서 다수에게 제공되는 효과는 '사회적 자본' 개발이고, 가장 개인적인 효과는 '학습능력'의 향상이다. 가장 내재적이면서 다수에게 제공되는 효과는 '공동체 정신의 표현' 이고, 가장 개인적인 효과는 '즐거움' 이다. 도구적이면서 개인과 공공 중간 범위에 영향을 끼치는 효과는 '자존감 향상', '학

24) 이윤영, 113-128쪽. 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에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지 않는 가치가 존재하며, 연대감, 일치감처럼 집합적 가치가 있으므로 개인의 효용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가치분석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업능력 향상’ 그리고 ‘건강 증진’ 인 반면, 내재적이면서 개인과 공공의 중간 범위에 영향을 끼치는 편익은 ‘인지능력 향상’ 과 ‘공감 능력 확대’ 이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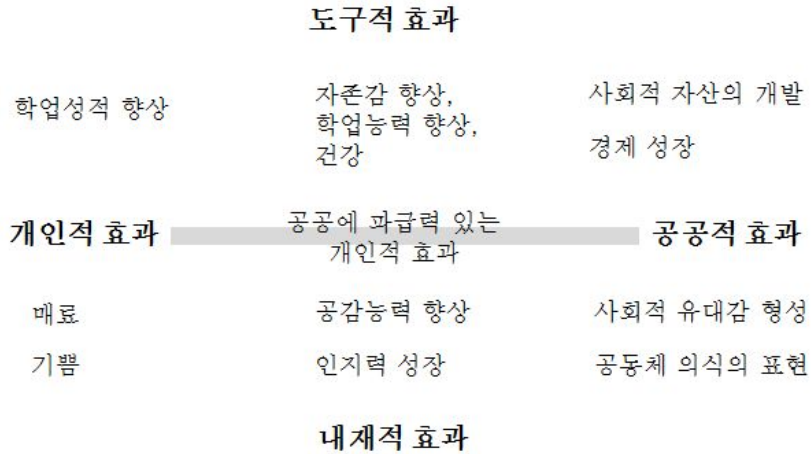
세부적으로 보면, 인지적 효과는 취학기 어린이의 창의적 사고력을 길러주고 말하기 같은 기본 실력을 개선하여 학습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술 감상을 통해 자기 조절능력이 개선되고 그룹 예술 작업을 통해 팀 행동이 주는 영향을 이해하는 등 사회적 유대감이 형성되어 올바른 사회적 태도와 행동을 길러줄 수 있다. 추상적인 예술 작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세계에 대해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며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줄 수도 있다. 또한 예술감상 및 예술활동을 통해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의 개선, 우울증 등 환자의 건강 개선, 스트레스 감소, 긴장감 감소 등 건강 증진의 효과도 있다.

개인에게 주는 효과로는 매료와 기쁨이라는 감정적 효과가 있다. 예술작품에 매료되는 경험은 우리에게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현실에서 벗어나 정신을 환기하게 해주고, 잠시나마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해 준다.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 활동을 통해 개인들에게 상상의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실제 경험보다 강렬하고 의미가 있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만족감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을 제공한다. 사회적으로는 지역의 공공 미술을 함께 감상하거나,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예술 활동 또는 예술 주제 토론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 간 공동체 의식 형성, 사회적 공공 자산 형성이 가능하고 커뮤니티 응집이 가능하다.

경제적 효과로는 예술기관의 운영이 예술 활동을 통해 인력을 고용하고 세금을 지불하며 지출활동을 통해 경제적 유발 효과를 낳고, 예술을 통해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 사람들과 회사를 유치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밖에 기념비나 상징물을 지역에 만들 경우, 지역 주민들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커뮤니티에 표현의 기회를 제공한다.

25) McCarthy et al, *Gifts of the Muse, Reframing the Debate about the Benefits of the Arts* (Santa Monica, Calif.: RAND Corporation), 2004, p.4.

[표1] 랜드연구소의 예술의 효과 분석틀



출처: McCarthy et al, 「뮤즈가 주는 선물: 예술의 효익에 대한 논의의 틀 다시짜기(*Gifts of the Muse: Reframing the Debate About the Benefits of the Arts*)」, 2004, p.13.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개인적 효과를 정리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문화예술의 도구적 영향과 내재적 영향을 한눈에 인식가능하도록 해주어 문화예술계의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 논문이다.

반면, 조슈아 게츠코우(Joshua Guetzkow)는 랜드 연구소의 연구를 위한 연구제안서(2002)를 바탕으로 같은 해 『예술이 커뮤니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예술 영향 연구 입문(*How the Arts Impact Communities: an Introduction to the literature on arts impact studies*)』를 작성했다.²⁶⁾ 이 연구는 기존의 실증 연구를 종합하고, 수혜자의 입장에서 예술의 효과를 심도있게 분석했다. 랜드 연구소의 분석틀이 예술의 영향의 범위를 크게 개인적 영향과 공공적 그리고 중간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도구적 효과와 내재적 효과로 분류하여 문화예술 가치의 전반적인 분석틀을 구성한 반면, 조슈아 게츠코우는 문화예술가치

26) 양현미, 100-101쪽.

의 최종결과라고 볼 수 있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가치를 정리했다. 조슈아 게츠코우는 문화예술의 영향을 개인적 영향과 사회적 영향으로 구분하고 개인적 영향을 물질적, 인지적, 대인적 영향으로, 공공적 영향을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인 영향으로 정리하여 총 여섯가지의 영향으로 분류했다. 그런 다음 참여의 정도에 따라 직접 예술가로서의 참여, 관객으로서의 참여, 참여하지는 않아도 예술가, 예술단체 및 기관의 존재 자체로 받는 영향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영향을 제시하였다.²⁷⁾ 게츠코우의 분석틀은 문화예술 활동이 미치는 개인적 및 사회적 효과를 한 눈에 제시했을 뿐 아니라, 참여의 정도에 따라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반영하여 한단계 더욱 심화된 분석틀이라는 의미가 있다.

3절 예술의 영향 분석틀 제시 및 활용

이상에서 살펴본 조슈아 게츠코우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앞서 살펴본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제시된 예술의 효과를 종합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조슈아 게츠코우의 틀이 수혜자의 측면에서 개인과 사회가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보여주는 만큼 이 분석틀은 수혜자의 입장에서 문화예술이 창출할 수 있는 효과를 한 눈에 파악하게 해준다. 지원사업에 적용한다면, 지원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 분석틀에 마련된 여섯가지 분야의 효과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할지 결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의 목표를 설정하면 된다. 지원 심의 시에는 해당 분야에 기술된 다양한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 종료시 효과 달성여부를 평가할 때에도 그 준거의 틀로 아래의 표를 활용할 수 있다.

[표2] 예술의 영향 분석틀

27) 게츠코우의 문화예술의 영향 분석틀은 양현미, 「문화의 사회적 가치: 행복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101쪽을 참조하면 된다.

3장 가치의 관점에서 지원사업 분석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지원으로 우리나라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²⁹⁾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과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공공기관에 의한 국고 지원이다.³⁰⁾ 문화예술진흥기금예술 지원 기금은 1972년 문예진흥원법 제정 이래 증가해 왔는데, 지원금의 전체 규모가 크게 늘었으며, 2000년 문화예술 부분 세출 예산이 처음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1%를 넘게 되어 문화부 예산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예진흥기금의 역사가 4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문화예술인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인 편이다. 문화예술활동 활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81.6%로 1997년 88%, 2003년 87.6%, 2006년 85.1%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낮다는 인식 역시 85.2%로 1997년 80.2%, 2000년 88%, 2006년 85.1%와 비슷한 수준이다.³¹⁾ 이 장에서는 문화예술을 위한 재정지원 제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 지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지원이 예술계의 재정적 안정에 기여해 왔다는 분석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내부적인 불완전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문화예술의 가치와 영향을 이해하고 수혜자 중심으로 파급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관점에서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을 분석해 보았다.

는 것만으로도 얻게 되는 효과를 지칭한다.

29) 김정수, 「문화예술 공적 지원에 대한 검토와 재성찰: 경기문화재단의 문예진흥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vol. 20, 2008. 165쪽.

30) 전병태 외, 『예술지원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서문.

31)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09, iii-14쪽.

1절 분석대상

분석대상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내 문화예술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지역문화재단을 제외하면 여전히 가장 많은 문예진흥기금을 배분하고 있다. 1998년도부터 문예진흥기금 지역이관을 실시한 가운데 2009년부터 수혜자 중심의 사업이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 지역협력형 사업으로 지역으로 이관해 지역별로 수행되고 있고, 현재는 예술인 및 예술기관을 위한 전국범위의 창작지원사업만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지형을 형성하는 중추적인 기관이다.³²⁾

지역협력사업은 16개 시, 도 및 문화재단에 기금을 배분하여 지역별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것으로 중앙과 지역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문화재단과는 기존의 지원사업과 통합하여 공연 예술단체의 전문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기타 지역은 공연, 전시, 지원사업의 기획재원사업으로 특화해서 지역에서 시도별 문화현장 활성화 및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³³⁾

분석에 앞서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의 지원 원칙과 방향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문화정책백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원 원칙과 방향은 정부의 정책 기조 안에서 틀을 갖추고 있다. 현재의 지원 원칙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08년 9월에 발표한 <문화정책 기조 및 예술정책>의 4대 지원방식과 지역협력형사업 강화에 근거한다. 4대 지원방식은 ‘선택과 집중’, ‘사후지원’, ‘간접지원’, ‘생활속의 예술 활성화’를 말하며, 이와 연계하여 지원사업의 지원방식이 대폭 개선된 것은 문예진흥기금이 지원된 이후 가장 큰 변화였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실패에 따른 예술가·단체·기관의 비용 보전에서 전략적인 목표 실현 중심으로의 지

3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직접 수행하던 예술지원 사업을 2009년부터 16개 광역시도로 이관해 지역별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고와 지방비를 연계하여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33) 그러나 현행 수준으로는 단순히 문예진흥기금 사업 일부를 지역으로 이관하는 차원으로 문예위를 통해 지자체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컨설팅하는 기능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2009 성과보고서, 19-31쪽.)

원방식의 전환이며, 크게는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이었고 중앙-지방 간의 사업협력, 순수예술 자생력 배양, 심의 신뢰성 확보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었다.³⁴⁾

4대 지원방식의 도입취지와 실행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선택과 집중’은 당초 맞춤형 지원을 위해 인적자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취지가 있으며 소액다건의 나눠 먹기식 지원금 분배에서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적인 지원금 배분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러 보고서에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듯이 적합한 건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했고, 단순히 소액다건을 상대적으로 소액소건으로 지원하거나, 1회성 지원사업형태를 다년간 지원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데에서 그쳤다.

두 번째로 ‘사후지원’은 당초 지원단체가 설정한 목표나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그 실행여부에 따라 지원하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었다. 현재 실연심사와 평가를 통해 성과 중심으로 지원하고, 사전 50-70%, 사후 성과보고서 제출시 30-50% 지원 방식이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당초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엄격하게 평가하여 잔여금 지원을 취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간접지원’은 예술계나 일반인이 필요로하는 문화적 자산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한 것으로 민간자원을 활용한 예술 활동의 거점 확충과 창작 여건 개선을 위한 예술전용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예술가·단체·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축소되고 레지던스 운영 및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 지원, 공연예술 전용공간 지원 사업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활속의 예술 활성화’는 생활 속에서 예술 향유 기회를 늘리고, 예술가와 지역 주민간 상호교류와 소통을 위한 것이다. 기존의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영향의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작가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주민에게는 예

34) 양효석, 「2010 문화,관광, 정책과 현장의 성과를 되돌아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웹진 문화관광, 2010. 10월호, 6쪽.

술 교육과 문화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이다. 장기적으로는 수요자가 문화 체험을 통해 문화매개자가 되고, 창작자도 될 수 있는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앞서 정리한 지원원칙과 방향, 도입취지와 현황을 바탕으로 한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의 절차는 아래 표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³⁵⁾

[표3]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의 절차

사업계획의 수립 및 확정 - 지원신청안내공고 -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심의 진행 - 최종 심의결과 확정 - 심의결과 발표 및 지급절차 알림 - 교부신청서제출 - 보조금수령 - 사업진행 - 사업평가 - 성과보고서제출 - 정산확정통보 - 지원사업종료
--

그러나 핵심절차이자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을 평가 시 주요 대상은 전략 - 추진체계 - 사업평가로 이루어진다.³⁶⁾ 이 논문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 추진체계 중에서도 가치 창출 방식을 고도화하는 방향의 개선이 가능한 심의기준과 사업평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절 심의기준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을 대상으로한 평가보고서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내부평가보고서와 외부평가보고서가 있다.³⁷⁾ 이 밖에도

35) 2011년도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 매뉴얼, 2011,6쪽.

36) 2009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성과평가 보고서도 전략평가, 추진체계평가, 사업평가로 구성되며,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항목으로는 지원프로세스의 적절성, 효율성, 공정성, 지원방식의 적절성 및 효율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평가한다.

3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년 문예진흥기금사업종합운영평가보고서, 2007, 2006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평가보고서, 2007, 2007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종합운영평가보고서, 2008, 2007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평가, 2008, 2008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종합운영평가보고서, 2009, 2008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평가, 2009, 2009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종합운영평가보고서, 2010, 2009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 2010, 2010년도

2009년에 개최된 지원심의제도 개선토론회의 자료집³⁸⁾이나 양현미의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³⁹⁾, 정광렬 「예술정책의 성과와 과제」⁴⁰⁾, 전병태 외 「예술지원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연구」⁴¹⁾ 등에서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의 심의기준과 사업평가에 대한 검토 내용을 부분적으로나마 찾아볼 수 있다. 상기 보고서와 관련 연구물을 종합 검토한 결과 지원사업의 절차 중 심의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심의 부분의 개선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2010년 양현미의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연구에서는 예술가 220명(질적조사 대상: 20명, 양적 조사 대상: 200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의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심사 과정 및 절차의 투명성 확보(33%)가 가장 시급하고, 뒤를 이어 심사방법의 구체성 및 전문성(26.5%), 심사위원 구성의 합리성(25%)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불공정 유형으로 꼽은 첫 번째 사례도 유명도에 따른 지원 편중이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체 평가 자료에서도 같은 지적은 드러났다. 2009년 평가보고서에는 심의기준에서 신진예술가 지원 시 분야 간 비교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명확한 심의기준 및 공정한 사업평가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⁴²⁾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 심의기준 상의 가치와 효

문예진흥기금사업 종합운영평가보고서, 2011, 2011년도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 매뉴얼, 2011,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최종결과보고, 2011를 참조했다.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는 3절 사업평가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었다.

3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제도개선토론회 자료집, 2009.

39) 양현미, 『문화의 사회적 가치: 행복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40) 정광렬, 『예술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41) 전병태 외, 『예술지원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42) 문예위 기관에 대한 외부평가로는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기획예산처의 경영실적평가, 기금운용평가, 공공기관혁신평가, 재정사업자율평가, 문화관광부에서 문예진흥기금 성과평가를 받는 한편, 내부평가로는 종합운영평가와 개별지원사업에 대한 현장 및 서면 방식의 사업에 대한 내부평가가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성과의 평가)에 의해 2006년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게 되어있다.(2007년 종합운영평가보고서)

과를 극대화해야한다는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한 경우는 없었다. 특히 선정을 위한 판단의 근거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해당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5절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2011년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 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이다.

[표4]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 지원사업 심의기준

<p>계획단계: 공간운영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공간운영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공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중기전략이 마련되어 있으며 타 공간과 운영상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공간의 시설물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은 양호한가 ○ 공간운영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p>공간기획프로그램의 예술적 수월성(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에서 기획, 운영코자 하는 프로그램은 공간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 기획아이디어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 기획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기획프로그램에 참여키로 한 주요 예술인들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p>집행단계: 공간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운영계획을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기획프로그램에 참여키로 한 주요 예술인들의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가 ○ 공간 및 사업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계획(홈페이지 운영, 매체 홍보 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 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은 현실성있게 짜여져 있는가

-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 활동실적을 볼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간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추진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성과단계: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30%)
- 공간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은 예술위원회의 사업목적 달성에 기여하며 예술현장의 창작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가
- 공간운영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하기 위한 자체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가(자체 평가결과의 환류 및 개선 노력은 적정하며 그러한 실적은 있는가)
- 공간이용 고객이나 이해관계자들의 만족수준은 어떠한가(공간이용 고객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국내외 예술인,단체,공간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사회 파트너십 활동을 통한 성과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가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안내』, 2010, 28-19쪽.

이 사업의 목표는 ‘시각예술분야의 창작 및 전시공간과 각 공간의 우수 기획전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시각예술분야의 창작 여건을 조성’ 하는 것이다. 문제는 창작여건의 조성이 어떤 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인지 불분명한테 심의기준 상에서도 그렇다는 점이다. 전체 심의기준에서 성과단계의 비중도 30%에 불과하고, 파급효과나 성과창출과 관련된 심의기준도 미흡하다. 예를 들어,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있으나 평가체계에 어떤 기준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밝히지 않았다. 고객과 이해관계자의 만족수준을 묻고는 있으나 공간을 통한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파급효과가 있었는지, 고객과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판단해볼 수 있는 기준도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파트너십과 관련한 심의기준을 보아도, 성과가 창출되는지 직접 묻기는 했지만, 질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없었다.

두 번째는 ‘차세대예술인력 집중육성 지원사업’ 이다.

[표5] 차세대예술인력 집중육성 지원사업 심의기준

<p>계획단계: 예술적 수월성 및 성장 잠재력(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은 예술적으로 우수한가(예술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 신청인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p>사업계획의 독창성 및 충실성(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계획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는가 ○ 프로그램이 창의적이고 참신하게 작성되었는가 ○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제시한 사업계획안은 충분히 연구되고 계획되어 준비되었는가 <p>집행단계: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은 현실성 있게 책정되었는가 ○ 계획된 프로그램이 활동실적 및 성과로 볼때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인가 ○ 민간기부금 유치를 통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p>성과단계: 사업수행을 통해 기대되는 예술적 성취도(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인의 예술적 역량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가 ○ 사업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환류를 통한 자기발전 계획을 갖고 있는가 ○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안내』, 2010, 41쪽.

이 심의기준은 사업내용과 계획의 우수성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목표가 '예술계를 선도할 역량있는 젊은 예술가 및 예술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차세대 인력으로 육성하는 것' 인만큼 예술계를 선도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이

보완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지원을 통해 예술계의 어떤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선도할 수 있는지, 육성 과정 및 결과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의기준이 마련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6]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심의기준

<p>계획단계: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청자(단체) 또는 초청대상자가 해당 교류 사업에 적합하고 신뢰할 만한가 ○ 공연의 경우, 공연장이 확정되어 있으며 규모와 스태프 및 출연진의 구성계획은 구체적인가 ○ 신청사업과 주최/주관단체(개인)가 국제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 사업 내용과 행사 국가/도시/장소와의 적합성은 어떠한가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p>사업계획의 예술적 수월성(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은 예술적으로 우수한가 ○ 사업계획이 독창적인가(기획자의 전문성 및 관련 활동을 고려할 때 예술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p>집행단계: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가능성(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사업규모와 지원신청 내용의 적정성으로 볼 때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인가 ○ 교류사업과 관련하여 초청장, 계약서 등 추진과정과 관련하여 믿을만한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가 ○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를 볼 때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기간 및 장소가 확정되어 있으며 신뢰할만한가 ○ 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 있는가

○ 교류사업 관련 지원신청주체, 초청국가간 예산 및 업무가 적정하게 분담되어 있는가

성과단계: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20%)

○ 단체(개인)가 제출한 사업계획은 예술위원회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우리 문화예술 국제교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가

○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하기 위한 자체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가(자체 평가결과의 환류 및 개선노력은 적정하며 관련 실적은 있는가)

○ 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참여자, 관객 등)의 만족 수준은 어떠한가(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국내 및 해외 예술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가

○ 남북교류관련 사업의 경우, 사업결과가 남북교류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안내』, 2010, 45쪽.

이상의 심의기준에는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묻는 기준이 다수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연장 확정, 서류 구비, 재정계획, 기간 및 장소가 그것이다. 반면 사업목표인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 차원의 국제 및 남북 문화예술교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예술의 창작역량을 강화’ 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남북 간의 민족문화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 하는지 달성여부를 측정할만한 심의기준 설정은 상당히 미흡하다. 사업목표와 비교하여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도 예상되는지, 현지에 파급효과는 어떠한지, 국내 예술계나 예술 단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 측정하는 심의기준이 있어야한다. 예를 들어 관람자 및 영향권 내의 사람 수 등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국제교류의 특성상 장르별 특성이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르별 심의기준을 개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3절 사업평가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운영평가와 개별지원사업에 대한 현장 및 서면 방식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내부평가 이외에도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성과의 평가)에 의해 2006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문예진흥기금 성과평가를 받으며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기획예산처의 경영실적평가, 기금운용평가, 공공기관혁신평가, 재정사업자율평가 등의 외부평가를 받는다.

내부평가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원 건별 작성되는 지원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다. 피지원처가 문예위의 양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지원 사업을 평가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자료이다. 이 보고서는 계량 부분과 기술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량 부분은 작품수, 행사 수와 기간, 참가자수, 주관객, 유료 관람객 수를 집계한다. 기술 부분에는 잘된 점,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 계획된 사업내용의 효과적인 실현여부, 설문조사 결과, 예상 외의 변수 등으로 부진했던 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방향, 언론 및 평론계의 관심도를 작성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 결과보고서 양식의 문제점은 지원사업의 파급효과와 성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먼저 성과 측정 기준을 포함하여 작성 지침이 미흡했다. 성과에는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행사 수와 참가자 수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앞서 2장에서 다룬 개인과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한 부분을 기재할 수 있는 칸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사업목표 대비 달성 정도가 사업 성과 평가에 중심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작성할 수 있는 칸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외부평가는 2008년 1) 정책사업 2) 단위사업 3) 세부사업의 사업별 평가체계에서 2009년부터는 1) 전략평가 2) 추진체계평가 3) 사업평가로 수행되었다. 이 중 전략평가는

기금 사업의 전체적인 전략이 적합한지, 전략목표(정책사업)의 성과가 있었는지, 프로그램의 구조 및 적절성 등에 관한 것이다. 추진체계평가는 지원프로세스, 지원방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이다. 사업평가는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였다. 사업평가는 설정된 평가지표에 대한 달성여부와 정성적 평가로 이루어진다. 평가지표를 통해 지원사업이 목표 대비 달성되었는지 파악하기 때문에 평가지표가 현실적인지, 목표를 반영하는지, 궁극적인 영향 및 효과를 측정하는지 검토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연도별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2007년 성과지표는 총지원행사, 지원프로그램 관람객수, 참여자 만족도(관람객, 지원단체), 예술지원 수혜예술가수였다. 2008년에는 예술지원 수혜자수, 예술지원단체 활동수준이 신설되었다. 2009년에는 관람객 1인당 기금예산액이 신설되었다. 2010년에는 국제교류지원사업 등의 효과성, 신규해외교류거점 개발수, 국내외 예술상 수상실적, 시나리오 완성률, 공간가동률, 평균창작작품수 등 개별사업의 평가지표가 대거 신설되었다. 2011년에는 예술활동유발건수, 가동률 등 2010년도와 비슷한 평가지표가 활용되었다.

[표7]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지표

2007	2008	2009
총지원행사수 관람객수 참여자 만족도 (관람객, 지원단체), 예술지원 수혜예술가수	총지원행사수 관람객수 참여자 만족도 (관람객, 지원단체), 예술지원 수혜예술가수, 예술지원단체 활동수준	총지원행사수 관람객수 참여자 만족도 (관람객, 지원단체), 예술지원 수혜예술가수 예술지원단체 활동수준 1인당 기금예산액
2010	2011	
효과성 신규해외교류거점 개발 수 국내외 예술상 수상실적	예술활동유발건수 가동률 효과성 신규해외교류거점 개발	

시나리오 완성률 공간가동률 평균 창작작품수	수 국내외 예술상 수상실적 시나리오 완성률 평균 창작작품수	
-------------------------------	---	--

2007년~2009년의 평가지표인 ‘총지원행사수’, ‘관람객수’ 등의 단순 계량지표와 비교하여, 2010년부터는 ‘신규해외교류거점 개발수’, ‘시나리오 완성률’, ‘평균 창작작품수’ 와 같이 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평가지표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화예술의 수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다.⁴³⁾ 이러한 점에서 단순 산출물(outcome)이 아닌 최종결과물(outcome) 중심의 심의지표로 나아가지는 못했으며, 이는 수혜자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수혜자 중심의 효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진단된다. 또한, 예술창작지원 사업의 성과지표가 ‘평균 창작작품수’, ‘시나리오 완성률’ 같은 작품수로 측정되는 것은 창작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지표다. 만약 작품수라는 지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창작 작품수의 기준점이 되는 작품 수를 장르별로 제시해야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객관적인 성과의 내용과 규모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누적 관리를 통한 성과목표치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하며, 이를 통해 연간 사업 예산대비 기대효과 달성여부도 검토할 수 있어야한다. 이 밖에도 최종 성과의 관점에서 효과 목표치를 설정하고, 수혜자인 국민, 지역민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최종적인 목적은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을 육성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의 가치를 누리는 것이다. 이는 문화예술 지원 원칙과 방향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필요한 객관성과 원칙을 담은 질적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심의기준이나, 산출

43) 지아코모 피그나타로(Giacomo Pignataro)는 단순산출물은 문화예술 활동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결과물로 행사 건수, 관람객 수, 고용자 수 등인 반면 최종성과물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작의 궁극적인 목표로 보통 수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정리한 바 있다. (*Performance indicators, A Handbook of Cultural Economics, 2nd edition* (Ruth Towse, Cheltenham [etc.] : Edward Elgar, cop, 2011), pp.367-368.)

물 자체보다 산출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평가기준은 미흡하다. 문화예술 분야는 그 특성상 성과의 계량적인 측정과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 문화예술에는 성과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으로, 그리고 평가될 수 있는 성과의 여러 측면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⁴⁴⁾ 그러나 문화예술 지원예산을 보다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여 결국 공공기금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기획부터 심의, 그리고 사업평가를 고도화하여 가치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4장 지원사업 해외사례 비교분석

1절 분석대상

3장에서는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이 문화예술의 가치와 지원이 미치는 전반적인 파급효과에 대해 충분히 예측하고 측정할 수 있는 심의 기준, 결과보고서 양식, 평가지표를 설정하지 않은 채 수행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외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외국 사례를 조사한 국내 연구로는 2000년 임학순, 「예술정책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의 경향과 과제」(2000), 이해경, 「공공 예술지원과 예술의 공공성-영국의 경험」(2001), 양건열 「순수문화예술 진흥방안 연구」(2001), 전병태 외 「예술지원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연구」(2005)가 있었다. 평가시스템에 대한 연구로는 이은미 「공공 문화예술 기관의 평가 시스템 구축」(2007)이 있었다. 선행 연구들은 다양한 사

44) Giacomo Pignataro, p.369.

례를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루고는 있으나 현행 지원사업을 개선하는데 참고할 만큼 구체적이지 못하였다. 또한 2000년대 초반의 연구자료들이어서 시의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재 외국에서 수행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직접 살펴보고, 문화예술의 가치와 효과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기준은 앞서 국내 사례 분석과 마찬가지로 지원원칙과 방향을 먼저 살펴보고, 지원사업 심의기준, 평가기준, 결과보고, 사업평가 및 평가지표의 순으로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기관인 미국의 예술진흥기금(National Endowments for the Arts)과 영국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두 곳의 지원사업이다.

2절 미국 예술진흥기금(National Endowments for the Arts, NEA) 분석

미국은 연방이나 공공부문의 재원 보다는 민간의 재원이 더 활성화된 국가로, NEA의 재원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화예술 우수성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NEA의 문화예술지원사업은 크게 ‘효과있는 예술(Art Works)’, ‘도전하는 미국: 더 빠른 길(Challenge America Fast-Track)’, ‘미디어 속의 예술(The Arts in Media)’, ‘우리 동네(Our Town)’, ‘전미 예술 인문 청소년 사업 시상(National Arts and Humanities Youth Program Award)’, ‘예술 배상 사업(Arts Indemnity Program)’ 이 있다.⁴⁵⁾ Art Works는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적 효과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Challenge America Fast-Track은 소외계층 지원사업이며, Our Town은 지역예술 지원사업과 유사하다. The Arts in Media는 방송매체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NEA 지원사업의 전략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NEA가 1달러를 지

45) NEA 홈페이지 Grants: Apply for a Grant에서 참조
<http://www.nea.gov/grants/apply/index.html>

원하게 되면 다른 지원처를 통해 7달러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술가·조직·기관의 파트너십 형성에 큰 기여를 한다고 분석했다. NEA의 2006년-2011년도 주기의 지원사업의 전략 방향은 ‘예술적 우수성’, ‘공공 접근성’, ‘예술 교육’, ‘파트너십’에 중점을 두었다. 이로써 예술성이 높은 사업과, 교육자료를 활용한 사업들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⁴⁶⁾

1) 지원사업 심의기준

앞서 언급한 여러 사업 가운데 이 논문에서는 우리 지원사업과 비교 가능한 ‘효과 있는 예술(Art Works)’, ‘도전하는 미국: 더 빠른 길(Challenge America Fast-Track)’, ‘우리 동네(Our Town)’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1) 효과 있는 예술(Art Works)

Art Works 사업목표는 예술창작 지원, 일반인의 예술 참여, 예술의 평생학습, 예술을 통한 커뮤니티 증진으로, 예술향유자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교육적 효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⁴⁷⁾ 주요 심의기준은 ① 예술적 우수성(artistic excellence) ② 예술의 기여도(artistic merit) ③ 성과측정의 가능성이다. 우리와 다른 점은 각 항목에 따라 세부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으로 예술의 기여도의 경우 일반인의 참여 뿐 아니라 지식과 기술 습득, 커뮤니티 강화 가능성까지 기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성과측정 부분에서도 측정기법 적절성, 증거제시 가능성, 기록·평가·결과공유

46) NEA의 지원사업은 6년 단위의 전략 방향에 따라 사업이 구축되고, 필요시 3년마다 수정된다.

47) 지원액은 일반적으로 \$10,000 ~ \$100,000 선으로 최저금액은 우리보다 큰 편이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계획 적절성이라는 평가기준이 비교적 상세히 수립되어 있었다. 또한, 지원자를 평가할 때 과거 실적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대신, 지원자의 미션에 적합한지와 사업 수행인력의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심의기준의 세부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8] NEA Art Works 심의기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적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예술가, 예술기관, 예술교육기관) □ 작품이나 서비스 질의 우수성 ■ 예술의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수준의 예술창작 □ 일반인이 다양하고 우수한 예술에 참여 □ 예술참가자의 지식과 기술 습득 □ 예술을 통한 커뮤니티 강화의 달성가능성 ■ 성과측정의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성과측정기법이 적절한가? □ 기록, 평가, 결과 공유 계획의 적절한가? □ 증거 제시가 가능한가? □ 예술가와 예술계에 미칠 영향을 제시했는가? ■ 프로젝트가 수행단체의 미션과 관객, 커뮤니티, 목표수혜자에 적합한가? ■ 예산, 목표, 디자인, 재원의 수준과 명료성 ■ 사업수행인력의 수준 |
|---|

(2) 도전하는 미국: 더 빠른 길(Challenge America Fast-Track)

이 사업은 소외인구를 위한 예술활동을 목표로 하며, 주요 사업 목표로는 ▲ 소외인구의 예술 참여 ▲ 커뮤니티 강화로 설정되어 있었다.⁴⁸⁾ 심의기준은 아래와 표와 같다. 사업목표가 소외인구와 커뮤니티에 중점을 둔만큼 “우수한 예술과 문화 자원의 접근 가능성 확대”라는 심의기준을 강조하였다.

[표9] NEA Challenge America Fast-Track 심의기준

- 예술적 우수성
 - 프로젝트의 우수성
 - 지원자(예술가, 예술기관, 예술교육기관) 또는 작품, 서비스 질의 우수성
- 예술적 기여도
 - 소외인구 접근 가능성
 - 일반인이 다양하고 우수한 예술에 참여
 - 예술을 통한 커뮤니티 강화의 달성가능성
- 프로젝트 단체의 미션과 관객, 커뮤니티, 목표수혜자 적합성
- 우수한 예술과 문화 자원의 접근 가능성 확대
- 예산, 목표, 디자인, 재원의 수준과 명료성
- 사업수행인력의 수준

(3) 우리 동네(Our Town)

이 사업은 커뮤니티 활성화 및 예술을 삶의 중심에 두기 위한 창의적인 공간 만들기 프로젝트이다.⁴⁹⁾ 심의기준 상 특징적인 부분은

48) 지원금은 \$10,000이다.

49) 지원금은 \$25,000 ~ \$150,000이다.

예술을 통한 커뮤니티 증진 가능성으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의 예술가와 단체를 지원하는지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커뮤니티의 정체성과 파트너십, 소외인구에 대한 접근가능성도 평가기준으로 활용하였다.

[표10] NEA Our Town 심의기준

- 예술적 우수성
 - 예술가, 디자인 전문가, 예술단체, 작품, 서비스의 질적 수준
- 예술을 통한 삶의 질적 향상(livability), 커뮤니티 활성화
 - 커뮤니티 활성화와 이를 위한 설득력 있는 비전 제시
 - 디자인과 예술의 생활화를 통한 지역예술가 디자인 전문가, 예술단체지원
- 커뮤니티 정체성
 - 장소성 반영 및 제고
 - 지역자산 활용
- 파트너십의 질적 수준
 - 개인 및 공공영역 참여
 - 파트너 미션에 프로젝트의 적절성
- 소외인구에 접근가능성
- 실현가능성
- 예산, 실현가능성, 커뮤니티 지원의 수준
- 지속가능한 전략의 적절성
- 사업목표와 사업디자인의 질적 수준과 명확성
- 활용 자원
- 수행인력의 자질
- NEA, NHPA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수준 달성

- 기간내 실현가능성
- 기록 및 평가 계획, 성과측정

2) 지원사업 결과보고

피지원처는 결과보고 양식을 통해 정성적 결과와 정량적 결과를 작성하게 되어 있다. 정량 결과부분에는 성취한 부분, 계획대비 달성여부, 주요 참가자, 참가자의 성격, NEA의 지원의 주요 목표의 달성도, 조직, 분야, 지역사회 영향과 혜택으로 구성되었다. 정량 평가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원수를 기준으로 측정하게 되어있어 작품수, 행사수,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예산집행의 대상이 된 예술가, 교사, 직원의 인원수를 작성하게 되어 있었다. 또한 매체별로 라이브 관객수, 방송관람 및 청취수, CD, DVD 등 출판물 독자 수도 기록하게 되어 있다. 파트너 역시 파트너의 수를 비영리 기관, 지역커뮤니티, 정부, 학교, 재단, 미디어 등으로 구분해서 적게 되어있다. 직접적인 산출물 이외에도 지역사회 영향과 혜택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기술하고, 영향에 대해 수혜자의 수를 중심으로 성과를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업평가 및 평가지표

1993년도 정부 성과 및 결과 특별법(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GPRA)에 따르면 NEA의 전략 계획은 6년마다 설정되고 3년마다 개정된다. 평가는 패널 검토, 지원금 집행, 결과 보고, 대상 조사, 현안 논의, 정량 평가로 이루어진다. 2006-2011 전략계획에 따르면 사업평가는 사례조사, 독립 평가위원의 검토, 분석, 기관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활용하는 ‘우수한 예술에 대한 접근’ 과 관련된 평가지표는 예술창작 장려 및 지원 보조금 총액, 문화유산 지원 및 보존 지원금 총액, 예술 수혜자 확대 지원금 사업, 지원금 총액, 행사 수, 작품수,

레지던시 수, 수혜자 수이다. ‘예술 교육’ 관련 평가지표는 다른 부분과 동일하나 관련 사업 수, 수혜 어린이/청소년 수, 사업수 등이 추가되어 있다. ‘예술 파트너십’ 부분에서는 예술 조직 지원금 총액, 지역 예술 기관 지원금 총액, 공공 및 개인 기관의 파트너십 사업 수, 파트너십 프로그램 수혜 커뮤니티 수를 집계했다. 그러나 전략계획 2012-2016을 보면 평가지표가 대폭 보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준 높은 예술 창작 사업’의 평가지표는 지원금 수혜 이후 예술적 우수성에 대한 리뷰, 양식적 혁신이 포함된 예술 작품 창작 지원사업의 비중 등이 추가되었다, ‘다양하고 우수한 예술의 공공 참여’는 성인·어린이·청소년 경험 비율, 영향을 받은 사람의 비율, 리뷰, 최근 설문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예술 학습 활동에 참가한 성인의 비율, 환경 개선을 위해 예술을 활용한 커뮤니티 수, 커뮤니티의 파트너수, 특정 대상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지원금 비중이 설정되었다. ‘예술의 기여’에 대한 일반인의 지식 및 이해 제고 사업의 평가지표는 리서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NEA 리서치 아젠다와 배포 목표 달성 사업 비율, 사업 계획에 예술을 포함하는 연방 정부 기관의 수, 미국의 예술과 예술가를 국제적으로 알리거나 다른 나라의 예술가 예술가를 미국에 알린 파트너십 수를 측정했다.

NEA의 심의기준, 결과보고, 평가기준의 특징을 종합하면 예술적 우수성과 수혜자 파급효과에 큰 비중을 두고 있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영향을 받는 수혜자의 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심의기준과 사업 결과보고서, 사업평가를 통해 파급효과와 영향 부분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절 영국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ACE) 분석

영국 예술지원의 근간이 되는 ACE의 예술지원사업은 일반지원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당대의 수요에 기반해 수립된 시책성 과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침체된 경제사정을 반영한 ‘생존력 강화 지원사업’, ‘디지털 연구지원’ 사업이 수행되었다. 2012년부터 2015년 기간동안에는 ‘전국 포트폴리오 지원’ 과 ‘공간 및 시설지원’, ‘재정다양화지원’, ‘관객개발 지원’, ‘예술교육지원’ 사업이 수행된다.

1) 지원 원칙과 방향

주목할 만한 것은 영국의 지원사업은 10년 단위의 전략적 분석틀에 따라 사업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사업목표가 설정된다는 점이다. 현재 주기의 전략 목표는 “모두에게 위대한 예술을...”이며, 이를 위한 다섯가지 목표수준은 ① 재능과 예술적 우수성이 번창하고, 인정받도록 한다. ② 문화를 더 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예술로써 영감을 얻는다 ③ 예술은 생존가능하고, 지속가능하며 혁신적이다 ④ 예술계의 리더와 인력은 다양하고 기술력이 높다 ⑤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예술의 풍요로움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략 목표는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있어 미래의 모습을 명확히 그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특징이 있다.⁵⁰⁾

2) 지원사업 심의기준

심의기준은 사업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아래와 같이 진단기준 (Prompts)라는 심의기준 모음을 활용하고 있다.

[표11] ACE 지원사업 진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디어 - 작업이전의 컨셉이나 예술적 동기의 근간

50) 영국예술위원회 홈페이지 Funding 파트에서 참조
<http://www.artscouncil.org.uk/funding/>

- 작업 - 작업의 수행방법, 경험하는 사람에 미치는 영향
- 개발 - 예술가, 예술장르, 폭넓은 예술 개발에 기여

■ **질적 수준**

<기본 질문>

- 예술 활동상 예술적인 아이디어가 강한가?
- 아이디어는 면밀히 구상된 것인가?
- 활동 계획은 예술적 구상(목표)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가?
- 이전의 작업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었는가?
- 예술활동 참여자들에게 영향과 변화를 가져올 좋은 경험을 줄 것인가?

<추가 질문>

- 예술의 질적 수준(예술성)
 - 아이디어가 작품이나 활동에 어떻게 연관되는가?
 - 예술적 목표가 효과적으로 실현되는가?
- 개발(기여)
 - 이 활동은 지원자의 작업을 직접적 또는 전반적으로 개발하는가?
 - 이 활동은 예술가의 기술이나, 참가자의 기술을 개발시키는가?
 - 이 활동이나 지원자의 작업은 예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혁신과 위험
 - 예술가는 활동에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나 컨셉을 탐구하는가?
 -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새롭고 우수한 경험을 어떻게 제공하는가?

<기타 질문>

- 예술의 질적 수준

- 활동의 부분들은 주요 아이디어를 얼마나 잘 보충하는가?
- 순회행사, 디지털방식, 네트워크 등 배포 방식이 효과적인가
- 이 활동은 모든 참여자에 얼마나 적절한가?
- 순회행사의 경우, 아이디어가 순회행사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포함되는가?
- 이 활동은 예술적 맥락과 관련이 있는가?
- 이 활동은 해당 영역과 장르에서 최상의 활동인가
- 콜라보레이션이 있는 경우, 그것은 아이디어를 개발에 얼마나 적절한가?
- 비평적 대화(예술가가 아이디어를 토론할 기회)가 활동을 개발하는 데 중요했는가?
- 순회행사의 경우, 이 활동이 순회지의 예술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 이전의 작업은 예술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었는가?
- 활동을 위한 조사, 기획, 준비는 어떠하였는가?
- 콜라보레이션이나 파트너십이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 이 활동은 다른 이에게 영감을 주고, 영향을 주고, 도전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가?

● 개발(기여)

- 이 활동이 지원자의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지원자가 활동의 파급효과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 아이디어는 해당 예술활동의 목적 및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가?

- 해당 활동은 지원자의 이전 작업, 경험 그리고 활동실적과 잘 연계되는가?
- 지원자의 작업이 평가와 동료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가?
- 활동 참여자로 하여금 예술적 도전 및 예술적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가?
- 예술가에게 새로운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가?
- 해당 작업은 일반인, 다른 예술가, 파트너, 비평가 등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예술계 전반의 예술적 활동과 예술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가?
- 해당 활동은 향후 예술 활동에 유산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는가?
- 이 활동으로 예술에 대한 이해와 논의가 확장될 수 있는가?

● 혁신과 위험

- 지원자는 혁신, 위험 및 우수성을 잘 보여주는가?
- 이 활동은 활동참여자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경계나 전제를 확장할 수 있는가?
- 지원자는 예술적 위험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이 있는가?
- 지원자는 활동 중 개발된 지식과 실행을 공유할 방법이 있는가?

■ 공공 참여

<기본 질문>

- 현재 예술에 참여할 기회가 적은 사람들에게 참여 기회를 높여주는가?

- 이미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술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가?
- 관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및 개발 계획은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가?
-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인들의 추후 참여방법을 고려했는가?

<추가 질문>

- 다른 예술 활동과 비교하여 관객이 참여 및 관여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가?
- 활동에 대한 수요가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는가?
- 일반인 또는 지역 커뮤니티는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가?
- 동 장소는 현재 예술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규모로 참여하게하는 곳인가
- 사람들의 수요와 기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 지원자는 지역 커뮤니티의 기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 접근성과 다양성이 고려되었는가?(활동이 더 폭넓은 예술가, 관 중, 프로젝트팀의 회원에게 접근하는가?)
- 지원자는 활동을 결정할 때 일반인과 지역 커뮤니티 참여를 고려했는가?
- 지원자는 참가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는가?
- 지원자는 평가 공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이 활동을 마친 후에도 일반인들이 동 예술가의 작업이나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하는가?

<기타 질문>

- 지원자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파트너십을 최대한 활용하는가?
-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있어 사람들이 참여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가?
- 순회행사의 경우, 대상의 수요를 만족시키는가?
- 동 활동의 국제적 면모는 향후 작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영국시민들이 예술가의 작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가?
- 활동은 일차 관객과 참여자를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 이 활동은 일반의 참여를 위해 라이브와 디지털 방식을 통해 유통 기회를 최대한으로 하는가?
- 지원자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방식을 통해 활동이나 작업 전반에 일반인을 참여시키는가?
- 지원자는 관객참여를 위해 지식과 실행법을 공유하는가?

■ **운 영**

<기본 질문>

- 활동은 실현가능하고 계획은 잘 짜여져 있는가?
(적정한 장소, 현실적인 순회 스케줄인가)
- 지원자는 활동 경영 능력을 잘 보여주는가?
- 지원자는 위험요소가 있다면 효과적으로 고려했는가?
그리고 이것을 알려왔는가?

<추가 질문>

- 지원자는 파트너로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가?
- 지원자는 유사한 활동을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 지원자는 활동의 장기적 영향을 고려했는가?(추가 작업량, 재원의 감소, 운영비 증가, 인건비와 기타 경영 요인)
- 조직의 경우, 조직의 경영 위원회나 이사회는 적극 참여하는가?
- 개인의 경우, 파트너나 협력자의 참여 수준은 적정한가?
- 활동계획은 준비, 자원, 달성방법, 기대효과, 위험관리, 모니터링, 평가를 포함하는가?
- 지원자는 기타 가능성, 파트너, 경쟁자를 고려하고 이에 따라 계획을 세웠는가?
- 순회의 경우, 제시된 일시와 장소가 이미 확정되었는가? 아니면 협의중인가
- 스태프와 위원회는 필요시 전문가 훈련을 받았는가?

<기타 질문>

- 조직의 경우 사업계획이 활동을 이끌 수 있도록 개발되었는가?
- 계획은 운영위원회, 이사회 등의 동의를 받았는가?, 모든 단계에서 활발하게 참여하는가?
- 파트너, 협력자, 기획자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끌어들이는가?
- 계획과 행사일시는 현실적인가?

■ 재 정

<기본 질문>

- 예산 계획이 적절한가?
- 지원신청액이 활동규모와 활동 종류에 적합한가?
- 경상비가 적절한가?
- 지원을 통해 다른 지원을 이끌어 내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가?

<추가 질문>

- 예산계획의 모든 항목이 필요하고 논리적인가
- 수입과 지출이 적절한가?
- 수수료나 임금이 적정한가? 예를 들어 참가자의 경력과 전문성에 비추어 적절한가?
- 활동 소득이 10%이하라면, 다른 소득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설득력있는 사례를 보여주는가?
- 자금운용상의 문제를 대비하여 예산중 일부를 적당히 할당해 두었는가?
- 재정상 변화가 있는가?
- 자금 운용(활동 기간 중 수입과 지출 시점)이 적절하게 고려되었는가?
- 기타 수입원이 확정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가능한 수입원은 현실성이 있는가?
- 지원자는 재정 운영 능력이 있는가? 또는 이 활동이 재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 현 재정관리가 적절한가?

<기타 질문>

- 지원자는 장기적으로 재정에 미칠 영향을 인지하고 있는가?
(인건비, 경상비, 감가상각, 유지비 등)
- 재정계획은 단체의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한 것인가?
- 감사기관은 재정계획을 검토하였는가?
- 펀드를 통해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계획은 현실적인가, 비즈니스 계획과 관련이 있는가?
- 지원자는 다양한 재원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조건 간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가?

진단기준에는 심사기준에 대한 정의와 구성요소, 그리고 판단근거가 무엇인지 포함되어 사업 방향을 보다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다. 특히 예술성에 대한 ACE의 기준은 원인(아이디어)-산출(실행)-결과물(개발/기여)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NEA가 프로젝트의 우수성과 지원자 또는 작품이나 서비스 질의 우수성으로 나누어 평가한 것과 비교된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심의기준의 문항이 전반적으로 질적수준과 성과지향적인 문항으로 개발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본질문과 추가질문 문항으로 나누어 있어서 사업의 성격별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⁵¹⁾

3) 지원사업 결과보고

ACE도 마찬가지로 정성적 결과와 정량적 결과를 작성하게 되어 있다. 정량 결과부분에는 장소, 수혜자의 수(예술가, 참가자, 관객), 수혜자의 연령대, 수혜자의 인구집단(인종, 장애인 등), 행사기간, 신작수, 예술가 고용 기간, 수행 행사수를 기입하게 되어 있으며, 정성 결과에는 주요 성과를 지원서 상 기대효과와 대비하여 기술하게 되어 있다. 활동 결과보고는 간략하나 중간산출물 위주로 되어 있다. 피지원처가 작성하는 이 평가보고서 외에 전문 평가자가 참관평가를 실시하여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4) 사업평가 및 평가지표

영국은 그동안 재무부와 총리실에서 국가운영의 주요 정책과 예산사업을 공공서비스협약(Public Service Agreements, PSAs)을 통해 수행해왔다. 이에 따라 ACE도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와 2011년까지 성과목표, 목적 및

51) ACE, Grants for the arts- understanding the assessment overview, 2011
http://www.artscouncil.org.uk/media/uploads/doc/understanding_assessment_criteria.doc 참조함.

자원, 성과목표치를 구체적이고 계량적으로 제시하여 재원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0년 기존의 공공서비스협약 대신 부처별 성과관리제인 공공부문 투명성제도(Public Sector Transparency Framework)로 전환하였다. 52) 여기서는 PSA의 성과관리 제도가 상단 수준 발달해 왔음을 감안하여 2008-2011년 기간동안에 해당되었던 DCMS와 ACE간의 재정 협약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ACE는 재정협약에 설정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관점에서 피지원자의 지원금액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모든 피지원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적 수준, 경영 능력, 재정 건전성, 공공의 혜택, ACE 전략목표 달성에의 기여도를 평가한뒤, 다른 지역 예술위원회의 평가(peer review)도 받게 하였다.

2005-2008년 기간 동안 ACE의 전략목표는 1) 영국 전역에서 예술 참가자 수 증대 2)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예술 경험 및 예술적 능력과 창의력 개발 기회 제공 3)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작품 제작 및 이를 위 인프라 지원 4) 예술분야의 개발자이자 예술 옹호자로서의 기관의 역할 5) 조직의 성과달성 개선이었다. 이를 위해 ACE는 피지원기관의 연례 검토와 위험 평가, 투자에 대해 격년 분석을 수행했고, 지원기관에 대한 연례 조사 성과를 분석했다. 파일럿 프로젝트와 사례 조사 수행으로 관리와 운영 선례를 마련했으며, 품질 경영과 예술성 평가 분석틀 도입으로 지원기관이자가 평가를 수행하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미국 NEA는 예술적 우수성과 접근성을 위해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수혜자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사업의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ACE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관점에서 피지원자의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목적과 지원금 집행이 연계되도록 하여 왔다. 둘 모두 평가제도나 평가기준이 우리의

52) PSA와 다른 점은 부처별 비전, 부처별 정책 우선순위, 구조개혁 방안, 지출내역, 투명성 등에 중점을 둔다는 점으로 재정위기에 대응하는 성과관리 체제이다.

것과 비교 할때 상당히 명확하고 최종목표와 연관성이 컸다. 특히 ACE는 피지원단체의 예산 배분 결정에도 전략목표 다섯가지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뒤 다른 지역 예술위원회의 동료 평가를 받는 시스템을 활용했다. 뿐만아니라 평가 결과물을 통해 선례를 선별하고 피지원기관이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종합하면 NEA와 ACE는 달성목표를 위한 데이터 취합과 평가 기능이 강했고, 질적 관리와 미래 방향 제시도 가능하게 하고 있었다.

5장 지원사업 개선방안

이 연구의 목표는 전략적 성과관리의 관점에서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3장에서는 우리나라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의 개선점을 분석한 결과 영향과 효과를 예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심의기준이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4장에서 미국의 NEA와 영국의 ACE의 지원사업을 검토한 결과 우리 사례와 가장 큰 차이는 기획부터 심사, 성과평가, 사업평가까지 가치창출을 위해 좀 더 고도화된 기준과 방법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5장에서는 2장에서 밝힌 문화예술의 가치와 효과를 반영한 심의기준과 그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문화예술의 가치와 분석틀에서 제시한 각 효과를 예상하기 위한 심의기준을 제안해보았다. 그런 다음 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목표로 하는 가치와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을 선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고도화하여 지원사업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1절 심의기준

우리나라 현행 심의기준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행정 및 관리 요소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성과 및 파급효과 측정에 중점을 둔 심의기준을 모아 문안을 우리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NEA, ACE, 일본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 미국 오하이오주 예술위원회(Ohio Arts Council), 뉴욕주 예술위원회(New York State Council for the Arts, NYSCA)가 사용하고 있는 심의기준을 참고하였다. 특히 2장에서 다룬 예술의 다양한 가치와 효과를 연역적으로 제시하면서 이것을 담을 수 있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적 효과

예술활동이 예술계 자체의 가치를 개선하고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기준이다. 예술가나 예술분야에 가치를 더하고, 예술의 가치 인식을 도울 수 있을지, 지역사회에 예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지 파급효과를 예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표12] 예술적 효과 평가내용

-
- ◆ 작품이 예술가와 해당 장르를 개발하는가
 - ◆ 전반적인 예술계 개발에 기여하는가
 - ◆ 참가자, 관람자에게 가치를 더하는가
 - ◆ 해당 지역사회에 예술의 가치를 증명해주는가
 - ◆ 참가자, 관람자가 예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가
 - ◆ 미래 효과가 지속되고, 후속 활동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가
 - ◆ 순회행사의 경우, 이 활동이 순회지의 예술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 ◆ 지원자는 예술분야 그리고 지원프로그램의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

2) 정신적, 신체적 효과

참가자 또는 관객으로서 예술을 경험하여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효과 중 개인의 정서적이과 육체적인 효과에 대한 것이다. 예술 활동이 참가자에게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영감을 주거나 즐거움을 주었는지 평가하게 한다.

[표13] 정신적, 신체적 효과 평가내용

-
- ◆ 예술활동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경험을 가져다 줄 것인가
 - ◆ 활동 참여자들에게 새롭고 우수한 경험을 제공하는가
 - ◆ 다른 이에게 영감을 주고, 영향을 주고, 도전하게 하는가
 - ◆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 ◆ 즐거움, 매료, 기쁨을 주는가
-

3) 인지적 효과

관람자나 참가자가 예술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인지력, 상상력, 창의력, 지식 개발, 분석력, 독창성 등의 다양한 능력에 대한 것이다. 예술이 개인에게 줄 수 있는 다양한 영향 중 인지력과 관련된 능력을 길러 주는지에 관한 것이다.

[표14] 인지적 효과 평가내용

-
- ◆ 경험은 학습자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는가
 - ◆ 예술참가자의 지식과 기술 습득이 가능하게 하는가
 - ◆ 인지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가
 - ◆ 예술의 이론적 시각, 컨셉, 관련 이슈에 관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가
 - ◆ 물질에 대한 지식 개발에 도움이 되는가
 - ◆ 문제와 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분석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가
 - ◆ 능력 및 기술 성과 개발에 도움이 되는가
-

-
- ◆ 창의력/상상력/독창성 개발에 도움이 되는가
 - ◆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 적용에 도움이 되는가
-

4) 대인관계 효과

참가자나 경험자의 능력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인지적 가치와 같으나 사고와 행동으로 연결되거나 사회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지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표15] 대인관계 효과 평가내용

-
- ◆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 ◆ 팀워크 개발에 도움이 되는가
 - ◆ 시간 관리에 도움이 되는가
 - ◆ 자원 관리에 도움이 되는가
 - ◆ 사회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가
-

5) 경제적 효과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측정가능한 효익은 정치적인 설득에 가장 효과적이다. 어떤 자원을 들여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제시할 수 있다. 특히 문화예술을 통한 관광 유치나 도시 재생 등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이 점차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는 사업이 많아지고,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점점 경제적 가치를 증거로 보여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기준의 필요성은 증가할 것이다.

[표16] 경제적 효과 평가내용

-
- ◆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가
 - ◆ 해당 지역의 발전 목표와 부합하는가
 - ◆ 미래 효과의 지속, 다른 프로그램과 시너지 효과 창출
-

6) 문화적, 역사적 효과

비록 자신이 직접 사용 하지 않더라도 향유할 수 있는 가치로 다른 사람들이 문화예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선택가치,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존재가치, 미래세대가 사용할 수 있음을 아는 데서 오는 유산가치, 장소나 국가의 정체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명성가치가 해당된다.⁵³⁾ 또한, 해당 지역을 대표하고, 정체성을 가지는지, 지역을 결집하게 만드는지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표17] 문화적, 역사적 효과 평가내용

-
- ◆ 문화적 자부심을 주는가
 - ◆ 국가 및 국제적 이미지 창출에 도움이 되는가
 - ◆ 예술과 문화를 대표하는가
 - ◆ 해당 지역의 문화를 강화시키고, 결집하게 만드는가
 - ◆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는가
 - ◆ 선택 가치가 있는가
 - ◆ 존재 가치가 있는가
 - ◆ 유산 가치가 있는가
-

7) 사회적 효과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간 유대감을 증진하고 사회적 융합이나 커뮤니티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18] 사회적 효과 평가내용

-
- ◆ 활동이 지역사회의 수요를 만족시키는가
 - ◆ 지원자는 작업의 공공적 가치를 인식하고, 커뮤니티의 경제적, 교
-

53) 브루노 S. 프레이 著, 주수현 외 譯, 『문화예술경제학』, 시그마프레스, 2007, 126-127쪽.

육적, 그리고 문화적 웰빙에 기여가 인정되는가

- ◆ 가치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고려했는가
 - ◆ 예술을 통한 커뮤니티 강화 가능성이 있는가
 - ◆ 커뮤니티의 다양한 수요와 관심을 이해하고 반영하는가
-

2절 평가기법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를 산출(output)이라 한다면,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파급효과는 영향(impact)이라한다.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목표는 영향이지만, 현행 평가지표는 대부분 1차 산출물에 국한되어 있었다.⁵⁴⁾ 김정수는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의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이 얼마나 진흥되었는지, 삶의 질이 고양되었는지 대답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다.⁵⁵⁾ 또한, 1차적 산출이 있다고 해서 수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도 없는 만큼, 수혜자의 관점에서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영향평가 기법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다양한 평가기법 중에서도 조슈아 게즈코우가 정리한 문화예술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제시하겠다.⁵⁶⁾

문화예술 분야에서 가치평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어느 한가지 방법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영국의 경우 경기 불황과 함께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이 대폭 삭감되면서 문화예술의 가치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이해가 될 있도록 소통방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에 문화예술분야도 경제학의 방법론과 개념을 사용하여 정책적 결정과 평가에 사용되는 용어와 언어를 활용하여 문화예술의 혜택을 최대한 표현해야한다는 주장이 생겼다.⁵⁷⁾ 뒤이어 문화경제학 분야의 주요 연구 주제인 가치평가의 다양한 기법에 대한 연구가

54) 김정수, 「문화예술 공적 지원에 대한 검토와 재성찰: 경기문화재단의 문예진흥원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vol. 20, 2008, 176쪽.

55) 김정수, 2008, 181쪽.

56) 게즈코우의 문화예술의 효과는 이 논문 14-15쪽을 참조할 수 있다.

57) Bakhshi, H., Freeman, A. and Hitchen, G., *Measuring intrinsic value-how to stop worrying and love economics*, London: Mission, Models, Money, 2009.

늘었고, 학술 논문이나 박사학위 논문, 정책 연구물을 통해 각 기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분석도 상당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주로 문화예술 기관 건립이나 문화유산에 대한 평가 기법, 축제의 경제적 영향 평가, 콘텐츠산업 등의 일부분에 국한되어 적용된 사례가 있을 뿐,⁵⁸⁾ 문화예술의 다양한 효과를 총체적으로 다룬 예는 없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먼저 다양한 평가기법을 다룬 해외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2010년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오브라이언(David O'brien)이 영국의 문화부(Th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의 문화와 스포츠 분야 증거 프로그램인 CASE(Culture And Sport Evidence)에 제출한 “Measuring Culture Value”에서 가장 종합적이고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측정기법 별 사례는 Michelle Reeve의 “예술의 경제 및 사회적 영향 측정: 리뷰 자료(Measuring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the Arts: a Review)”, 재닛 디 스노우볼(Jeanette D. Snowball)의 “예술과 사회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스탠다드은행 전국 예술 페스티벌을 대상으로 경제적 영향 평가 및 지불의사 금액 연구(Towards More Accurate Measurement of the Arts to Society: Economic Impact and Willingness to Pay Studies at the Standard Bank National Arts Festival)”(2000), “문화가치 측정: 문화경제학적 기법과 예시(Measuring the Value of Culture: Methods and Examples in Cultural Economics)”(2007)을 참고하였다. 그런 다음 앞서 논한 게츠코우의 분석틀에 맞추어 각각의 가치에 대해 측정이 가능한 기법은 다음과 같다.

58) 고성보 외, 『돌담: 가치평가와 문화관광자원화방안』, 제주대학교출판부, 2010, 이상훈 외, 신백수, 「문화예술축제의 경제적 가치추정에 관한 연구: 2005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2006, 이영경, 「문화유산 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 불국사,석굴암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6권 1호(통권 63호), 2008, 35-43쪽, 이상훈 외, 「문화컨텐츠 가치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제28호, 2011, 185-201쪽, 이흥재, 『춘천인형극제의 지역경제-사회문화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995, 주수현 외, 「부산영상센터에 대한 동남권 가치평가 비교분석」, 『경제연구』, 27권 1호, 2009, 211-230쪽 등이 있다.

[표19] 게즈코우 분석틀에 따른 가치평가법

개 인			사 회		
신체적, 건강 효과	인지적 심리적 효과	대인관계 효과	경제적 효과	문화적 효과	사회적 효과
수명연장 가치 추정법,	관람자 태도조사		EIA, CM, CVM, TC	기술기법	

1) 신체적, 건강 효과

문화예술의 참여를 통해 신체 및 건강이 개선 개선되었다고 보는 경우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경우 **수명연장가치 추정법**(Quality Adjusted Life Years, QALY)으로 측정할 수 있다.

예술이 건강과 복지(well-being)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문화가 가져오는 복지 상의 변화를 묻기 위해 문화가 주는 복지는 얼마만큼의 가치인지 개인이 직접 산정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원래 수명연장 가치 추정법은 수명 1년을 늘리기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 측정하는 것으로 산업이나 환경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법이다. 문화 예술 분야에 적용하는 방법은 응답자에게 문화예술의 행사에 참가했을 때 본인의 웰빙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하고, 그 수준의 웰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소득이 필요한지 묻는 것이다. 장점은 웰빙의 개념은 사람들에게 익숙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개인마다 웰빙을 정의하고 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웰빙을 달성하는 데는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기법을 활용한 사례로는 영국의 DCMS의 CASE 연구에서는 이 기법을 통해 주 1회 이상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의 가치는 소득 9,000 파운드(1파운드= 약 1,800원)과 맞먹는 것으로 추정한 것이 있다.⁵⁹⁾ 영국에서는 보건분야에서 이 방법의 적절성과 실용성에 대한 학계의 비

판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건분야의 주요 평가기법으로 채택했고, 기타 분야에서도 중요한 평가기법으로 자리잡았다.

2) 인지적, 심리적 효과, 대인관계 효과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비경제적인 용어로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 예술의 가치를 측정해왔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설문 조사를 활용한 관람자 태도 조사와 서술 기법이며 이런 방식으로 문화예술이 개인이나 지역사회 등에 어떤 의미인지 확인할 수 있다.⁶⁰⁾

앨런 브라운과 제니퍼 노박(2007)은 관람자 태도조사를 통해 예술이 전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한 기관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내재적 영향, 개인에게 미치는 공연 1회의 내재적 영향을 분석하여 예술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설문을 통해 응답자가 예술에 대해 수용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관람 동기, 낯선 환경인지 여부, 정신적 또는 기분상의 준비를 관찰했으며, 공연에서 받은 내재적 영향은 설문지를 통해 공연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조사했다. 때로 정도, 지적 자극 정도, 감정적 울림 정도, 정신적 가치, 심미적 성장, 사회적 유대감으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때로, 지적 자극, 감정적 반응, 영적 가치, 참신함, 다른 사람들과의관계에 있어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참여자의 효익을 측정했다. 점수로 산출되는 효익은 개인이 문화예술을 얼마나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 데이터와 연계하여 숫자로 보여주어 일종의 증거를 보여여줄 수 있다.⁶¹⁾

3) 경제적 효과

영향과 효과의 차이는 효과가 한 행사의 참가자가 경험하는 데

59) 오브라이언, 19-20쪽.

60) ACE2007, Rumbold 2010, McMaster 2008

61) Alan S. Brown, Jennifer L. Novak(2007:21) Assessing the Intrinsic Impacts of Alive Performance, Mayor University Presenters, 2007.

서 느껴지는 것이라면, 영향은 그 경험으로 인해 수반되는 지역사회 등 사회 단위의 포괄적인 변화를 말한다. 경제적 효과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영향분석법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간접 측정과 직접 측정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 방법은 사용자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가치를 평가(Stated preference)하게 하여, 전체 수요(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간접방식은 비사용자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구매를 통해 나타난 선호도(Revealed preference)로 시장자료로 수요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직접 방식으로는 대표적으로 임의가치 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선택모형법(Choice Modelling)이 있고, 간접 방식으로는 여행비용 측정법(Travel Cost), 내재가가격법(Hedonic Pricing) 등이 있다.⁶²⁾ 다음은 각각의 측정기법의 특징과 활용방법과 장단점, 문화예술 분야 실제 적용 사례이다.

① 경제적영향분석법(Economic Impact Analysis, EIA)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1930-40년대 경제학자 케인즈가 만든 승수효과(Multiflier)가 있다. 승수효과는 최초의 투자가 일어나면 다른 분야의 투자가 일어나, 소득과 고용이 몇 배로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예술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과 전체 경제간의 연관성을 추정하는 것이다. 주로 한 분야에서 1달러를 추가적으로 지출했을 때 전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지출이 발생하는지 측정한다.⁶³⁾ 승수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예술에 지출하는 것이 다른 종류의 소비를 창출한 것보다, 기존의 소비를 대체한 것이므로 파급효과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승수효과가 적절한 측정방법은 아니라는 의견도 많지만 화폐 가치 환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⁶⁴⁾

62) 이은정, 고태호, 황경수,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0권 제2호에서 선택모형법을 다루지 않았다.(216쪽) 반면, 데이비드 오브라이언은 선택모형법을 직접방식의 대표적인 기법으로 꼽았다.

63) Christopher Madden, *Using 'Economic' Impact Studies in Arts and cultural Advocacy: A cautionary note*, No.98, February 2001, p.168.

64) Charles Atkin과 David Beeman의 Economic Impact Analysis Conference 발표

영국에서는 정부가 EIA를 통해 1파운드를 문화예술에 투자하면 2파운드의 승수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2001년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정책연구원이 산업별 매출액 평균값에 디자인 투자승수와 각 산업별 부가가치 비율을 곱하여 70대 상장기업에서 디자인의 경제가치는 1조 1400억원, 전체 상장기업의 디자인의 경제가치는 10조 9617억원, 국가 경제 전체의 디자인의 경제가치는 26조 5338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② 임의가치 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s, CVM)

데이비드 오브라이언에 따르면 가상평가기법, 조건부 평가기법이라고도 한다. 임의가치 측정법은 현재 미국과 영국 등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평가기법으로 꼽힌다.⁶⁵⁾ 문화예술 행사에 참가하는 데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설문을 통해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람들은 임의로 지불 용의가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제시하게 하는 것이다. 위락시설에 대한 사용가치, 자연경관, 유적지, 스포츠, 건강,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고⁶⁶⁾ 예술행사의 총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응답자가 사회 경제적 기준을 통해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과 문맥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구체적이면서, 지불 및 전달 방법이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오차가 적게 된다.⁶⁷⁾

이 기법을 문화예술 분야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협찬 금액을 결정하거나 행사 개최횟수 결정을 해야할 때, 여러 대상을 비교할 때 등으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컨설팅사인 Spectrum이 영국도서관 British Library에 대해 CV로 측정한 가치는 3억6300백만 파운드였다. 지원액인 8300만 파운드에 비하면 4배 가까운 수치가 집계되었다. 이 밖에는 핀란드 미술관(Tohmo 2004), 올림픽 게임 유치(Eftec 2005), Durham 대성당(Willis 1994), 베트남 세계유산지역(Tuan and

내용 (2004년 5월 12-14일)

65) Eftec 2006:30 재인용

66) Thompson 1998, 이희찬 2003, Snowball, p.113.

67) Mason 2002:14, Mourato 2000, Eftec 2005

Navrud 2008), 덴마크 극장 (Hansen 1997)에 대한 적용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는 박현, 유경준, 곽승준(2004)이 국립중앙박물관 신축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여, 평균 지불의사액이 2,443원을 산정했다. 이승훈, 이강욱(2008)은 낙동강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으로 18세 이상 국민 1인당 11,839원, 방문객은 11,373원, 지역민은 12,222원의 가치를 산정한 바 있다.

③ 선택모형법(Choice Modelling, CM)

선택모형법은 직접 가격을 묻는 대신, 재화나 서비스의 특징과 성격의 수준을 다르게 하여 묻는 다음, 각각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가치를 추정해 내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세금을 얼마나 올려도 되는지, 티켓 가격을 얼마만큼 올려도 되는지 개인의 선호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장점은 가치에 대해 답변하기 힘들거나, 일부러 가치가 없다고 대답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램 에반스(Graeme Evans)는 1999년 영국 4개 도시의 예술 행사 참가자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관객들은 발레, 드라마, 연극, 오페라 분야에서 당시 티켓 가격보다 21-44% 더 많이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을 밝혔고, 공연장에서 이 수준으로 티켓 가격을 올린 공연장이 있었던 것도 밝혔다.⁶⁸⁾ 스노우볼과 안트로버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래햄스타운(Grahamstown)에서 열리는 연례 예술페스티벌을 후원하기 위해 세액 증액의사를 물어 상대적으로 가난한 동부 지역 주민의 73.5%가 5랜드(1 Rand = 약 140원)이상 지불할 의사가 있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서부지역에서는 81.3%가 5랜드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⁶⁹⁾ 에릭 톰슨, 마크 버거, 글렌 블롬퀴스트, 스티브 알렌

68) Evans, Graeme, 1999. "The National Performing Arts- Exploiting Willingness to Pay and Consumer Surplus: A Case of Cultural Policy Failure." *Leisure Studies*, 18(2): 97-118.

69) Snowball, J.D., G.G. Antrobus. *WTP Study of Standard Bank National Arts Festival*, 2000.

은 공동연구를 통해 미국 켄터키주에서 전시와 공연의 횡수를 25% 증가시키는 데 개인들의 지원 의사액을 물었고, 전시와 공연의 횡수가 25%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기부할 의사가 있는 액수, 50%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기부할 의사가 있는 액수를 물었을 때 응답자는 각각 \$8.36, \$12.55, \$24.31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⁷⁰⁾

④ 여행비용측정법(Travel Cost)

여행비용측정법은 재화나 서비스를 경험하기 위해 여행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방법으로 가치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비시장재화의 가치추정을 하는데 가장 먼저 고안된 기법이나, 이동 소요 시간과 연료 비용에 대한 기준이 응답자마다 같아야 오차가 적다는 점으로 교통 관련 산정치를 활용해야한다는 점과 여행 자체를 즐겨서 원거리 이동을 꺼리지 않는 경우를 포함할 경우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 저평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주로 문화유적지에 대한 연구에 활용이 되어 아르메니아 유적지(Alberini and Longo, 2006), 스코틀랜드 미술관(Baker et al 1998), 스페인의 페스티벌과 유적지 네 곳의 추정가치를 비교한 연구도 있었다.(Bedate et al 2004). 보터 외(Boter et al, 2005)는 네덜란드의 박물관들의 가치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정부의 의사박물관 관련 결정을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영국에서는 포레스트 외(Forrest et al, 2000)가 맨체스터 지역의 극장들을 비교하여, 각 극장에 투입되는 지원금의 효과를 평가하기도 했다. 국내 연구로는 최용부, 김진현, 민병익(2002)은 여행비용접근법을 사용하여 경남 진주성에 대해 사용가치와 선택가치를 평가했다. 입장료, 교통비용, 시간비용을 합산하여 측정한 사용가치는 340

70) Thompson, Eric, Mark Berger, Glenn Blomquist, and Steve Allen. (2002), "Valuing the Arts: A Contingent Valuation Approach",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6(2).

억원으로 추정했고, 선택가치는 평당 302만원으로 추정한 적이 있다.

⑤ 내재가격법(Hedonic Pricing)

내재가격법은 재화나 서비스는 시장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묻는 방법으로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총 가치를 구성하는 개별 부분으로 나눈 후, 개별 측면의 가치를 측정하여 총 가치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부분의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 임의가치 측정법을 사용해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개별 측면을 분리시켜 가치를 생각해 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특히 심미적인 영향 등일 때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재가격법으로 문화예술을 측정한 사례는 거의 없다. 유사 사례로는 물건 외(Mulgan et al, 2006)가 도시 환경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 좋은 디자인의 가치를 측정한 것을 들 수 있다.⁷¹⁾

4) 문화적, 사회적 효과

문화적 효과 및 사회적 효과를 측정하는 데는 서술기법(Narrative Methods)가 주로 사용된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영화위원회 '영화의 문화적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에는 영화 200편을 대상으로 영화가 영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영국문화에 끼친 영향, 영국 영화의 판매고, DVD 판매고, 언론 및 문화에서 영국의 영화를 인용하는 빈도, 검열 관련 문제, 역사적 시기를 영화에서 어떻게 다루었는지 기술했다. 문화적, 사회적 효과의 경우 정량적인 데이터 측정은 어려운 반면 그 맥락을 기술 방식으로 설명하기 쉬운 만큼, 서술 기법을 활용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 있다.

5) 기타: 제안 비교 및 지원액 결정

71) Mulgan et al, *Mapping Value in the Built Urban Environment.* A Report to the 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 London: Commission for the Built Environment (CABE), 2006.

둘 이상의 신청건을 서로 비교하거나 상대적으로 지원액을 결정할 때는 다범주 분석과 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평가에는 목표대비 성과측정법을 활용하고, 후속 기획을 위해 보완사항이나 주력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범주분석이나 컨조인트분석기법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다범주 분석(Multicriteria Analysis)

다범주 분석은 심미적 판단이나 태도조사를 통해 얻은 문화 가치를 문화의 경제적 가치와 통합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데이터이기 때문에 각각 점수를 매긴 후 가중치를 준다. 교통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방출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과 이동시간 같은 가치를 합산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행사의 가치의 점수에 참석률, 환경 영향, 관객 수 같은 요인들이 가중치와 함께 합쳐진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2010년 하산 바크시와 데이비드 트로스비가 예술과 서로 다른 데이터를 한 구조 안에 병합하는 것을 연구했으나 적용가능한 범위가 알려지지 않았고, 범주와 가중치를 정하는 데 개인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할 때, 의사 결정에 어느 정도 투명성을 더해주고, 기존의 경제적 데이터 이외의 데이터를 양산해 줌으로써 경제적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② 결합 분석법(Conjoint Analysis Method, CAM)

결합 분석법은 대상의 금전적 가치에 대해 직접 묻는 대신,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후, 여러 속성에 대한 화폐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응답자들은 가상상황에서 만족하는 선택이 무엇인지 서열로 표현하므로 직접 화폐 가치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고, 가장 실행가능성이 큰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⁷²⁾ 이 기법은 응답자의 지불의사금액과,

환경영향들과의 관계를 함께 알 수 있어, 임의가치측정법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결합 분석법은 유명 출연진이나 좌석 정책, 시즌 할인 등의 요인을 결정할 때 사용이 되는 기법이다.⁷³⁾ 임란 커림 외는 예술행사에 참여하기까지 관객의 결정에 미치는 요소를 연구하기 위해, 거리, 할인 등의 경제적 요소, 좌석 혜택, 이벤트 성격, 이벤트 시기가 미치는 영향을 컨조인트분석으로 조사했고, 행사장까지의 거리, 유명 출연진, 가격, 좌석 혜택의 순으로 중요도를 도출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게츠코우가 제시한 여섯가지 효과는 각 부분이 성격에 맞는 측정법을 활용하여 측정이 가능하다. 개인의 가치 중 신체적, 건강 효과는 수명연장가치추정법을 사용하고, 인지적, 심리적 효과와 대인관계 효과는 관람자 태도조사를 사용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 중 경제적 효과는 경제적영향분석(EIA)과 임의가치측정법(CVM), 선택모형법(CM)과 여행비용측정법(TC), 내재가격법(HP)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문화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는 기술기법(Narrative Methods)을 사용하여 측정하도록 할 수 있다.⁷⁴⁾ 둘 이상의 제안을 비교하거나 상대적으로 지원액을 결정할 때는 다범주분석과 결합 분석법을 사용할 수 있다.

3절 향후 과제

이 논문의 목표는 전략적 성과창출의 관점에서 문화예술 지원사

72) 이은정, 19

73) Imran S. Currim, Charles B. “Weingerg, Dick R. Wittink, Design of Subscription Programs for a Performing Arts Seri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8, June 1981.

74) 경제적영향분석 활용을 위해서는 학계를 중심으로 문화예술분야의 승수를 만들고,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한다.

업의 기능 및 역할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에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취약점에 대해 분석하고 해외사례와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효과를 반영한 심의기준 및 평가기법을 제안하였다. 결국 문화예술이란 그 가치와 파급효과를 계량화하기 힘든 분야이기 때문에 가치를 반영하는 심의기준과 평가기법이 마련된다면 문화예술 지원예산을 보다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고, 예술계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평가기법을 도입하는 데는 선행과제가 있다. 영향평가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황에 맞는 승수를 개발하고, 공통 설문 문항을 개발해야한다. 또한, 논문에서 제시한 지원사업 심의기준 개선연구는 성과평과의 관점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지원사업의 전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책임심의관제나 동료평가 도입 등 지원사업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선행과제 수행과 추가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의 가치를 창출하는 지원사업으로 개선될 수 있다면 지원사업을 개선하는 것은 단지 지원사업 프로세스 개선이나 사업구조의 개선, 프로그램 개발의 관점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가치와 영향의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와 패러다임 정립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강영안, 『문화 개념의 철학적 배경』, 두레시대, 1995.
- 고성보 외, 『돌담: 가치평가와 문화관광자원화방안』, 제주대학교출판부, 2010
- 김병철, 『메타평가론 메타평가 모형의 설계와 적용』, 한국학술정보(주), 경기, 2009
- 차의환, 『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울아카데미, 2007.
- Audit Commission et al, *Local Performance Indicators for the Arts*, 2003.
- Pignataro, Giacomo, *Performance indicators, A Handbook of Cultural Economics, 2nd Edition*, Ruth Towse, Cheltenham Edward Elgar, cop, 2011.
- Vedung, Evert, *Public Policy and Program Evaluation*, New Brunswick, 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 2009.

번역본

- 마이클 포터 著, 조동성 譯, 『마이클 포터의 경쟁우위』, 21세기북스, 2008.
- 브루노 S. 프레이 著, 주수현 외 譯, 『문화예술경제학』, 시그마프레스, 2007, 126-127쪽.

학술 논문

- 김정수, 「문화예술 공적 지원에 대한 검토와 재성찰: 경기문화재단의 문예진흥원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vol. 20, 2008, 163-191쪽.
- 박영은, 「문화담론과 연구방법론」, 『연구논총』, 23집, 한국정신문화

- 연구원, 1995, 1-47쪽.
- 신백수, 「문화예술축제의 경제적 가치추정에 관한 연구: 2005 청주국제 공예비엔날레를 중심으로」, 청주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이영경, 「문화유산 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 불국사,석굴암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6권 1호(통권 63호), 2008, 35-43쪽.
- 이상훈 외, 「문화컨텐츠 가치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제28호, 2011, 185-201쪽.
- 이은정, 고태호, 황경수, 「문화시설 건립정책의 비용편익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0권 제2호, 2010, 209-230쪽.
- 이흥재, 『춘천인형극제의 지역경제-사회문화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995.
- 이희찬, 「메가이벤트의 지역경제효과 추정방법 연구: 2000 광주비엔날레를 사례로」, 『관광학 연구』, 25(2) 한국은행, 2003.
- 주수현 외, 「부산영상센터에 대한 동남권 가치평가 비교분석」, 『경제연구』, 27권 1호, 2009, 211-230쪽.
- Alan S. et al., *Assessing the Intrinsic Impacts of Alive Performance*, Mayor University Presenters, 2007.
- Americans for the Arts, *Arts and Economic Prosperity: The Economic Impact on Nonprofit Organizations and Their Audiences*, 2003.
- Bakhshi, H., Freeman, A. and Hitchen, G. (2009), *Measuring Intrinsic Value: How to Stop Worrying and Love Economics* London: Mission, Models, Money, 2009.
- Belfiore, Eleonara, "Auditing Culture: the subsidized cultural sector in the New Public Man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10, no.2, 2004.
- Evans, Graeme, "The National Performing Arts— Exploiting Willingness to Pay and Consumer Surplus: A Case of Cultural Policy Failure", *Leisure Studies*, 18(2), 1999.
- Heilbrun, M. Grey, *The Economics of Art and Culture*, Cambridge

- University Press, 1993.
- Imran S. Currim et al. "Design of Subscription Programs for a Performing Arts Seri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8, 1981.
- Klamer, Arjo,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Values of Cultural Goods, Cultural and Public Action*, V.Rao and M. Walton, Eds.,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 Madden, Christopher, "Statistical Indicators for Arts Policy", *D'Art Report* no. 18, IFACCA, 2005.
- Mason, Randall, 'Assessing values in conservation planning',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Los Angeles, 2002.
- Matarasso, François, *Defining Value*, Evaluating arts programmes, Comedia, 1996.
- _____, *Use or Ornament? The social impact of participation in the arts*, Comedia, 1997.
- McCarthy, Ondaatje, Zakaras, Brooks, *Gifts of the Muse, Reframing the Debate about the Benefits of the Arts*, RAND Corporation, 2004.
- Mulgan et al, *Mapping Value in the Built Urban Environment.' A Report to the. 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 Commission for the Built Environment (CABE), 2006.
- Myerscough, John, *The Economic Importance of the Arts in Britain*, London: Policy Studies Institute, 1988.
- Nylöf, Göran, "A Method for Evaluating Cultural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3(2), 1997, pp.361-376.
- O'brien, David, *Measuring the Value Culture Report*, DCMS, 2010.
- Peacock, Alan, "Economics, Cultural Values and Cultural Policie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vol. 15, no. 2, 1991, pp.1-18.

- Pignataro, Giacomo, *Performance indicators, A Handbook of Cultural Economics, 2nd edition* (Ruth Towse, Cheltenham [etc.] : Edward Elgar, cop), 2011.
- Reeves, Michelle, *Measuring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the arts*, 2002.
- Schuster, J. Mark, "The Performance of Performance Indicators in the Arts",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vol. 7(3), 1996, pp.253-269.
- Snowball, J.D., G.G. Antrobus. *WTP Study of Standard Bank National Arts Festival*, 2000.
- Stufflebeam, L. Daniel, "Empowerment Evaluation, Objective Evaluation, and Evaluatin Standards: Where the Future of Evaluation Should Not Go and Where It Needs to Go", *American Journal of Evaluation*, 1994, pp.321-338.
- Throsby, David, *Economics and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_____, "Culture, Economics and Sustantiality" ,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vol. 19, 1995, pp.199-206.
- Thompson, Eric et al. "Valuting the Arts: A Contingent Valuation Approach",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6(2), 2002, pp.87-113.
-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Advocacy Guide making the case for the arts*, 2010.
- Guetzkow, Joshua, *How the Arts Impact Communities: an Introduction to the lierature on arts impact studies*, Center for Arts and Cultural Policy Studies, 2002.

보고서 및 기타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외, 『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09.

- 문화체육관광부 외, 『2011 문화정책백서』, 2012.
- 문화체육관광부 외, 『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09.
- 문화관광부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단, 2006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평가보고서-요약, 2007.
- _____, 2007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평가보고서, 2008.
- _____, 2008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 요약보고서, 2009
-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단 외, 2009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 최종보고서,
2010.
-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 최종결과보고,
2011.
- 양건열, 『순수문화예술 진흥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 양현미, 『문화의 사회적 가치: 행복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
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 _____,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
광연구원, 2010.
- 양효석, 「2010 문화,관광,정책과 현장의 성과를 되돌아보다!」, 한국문
화관광연구원 웹진 문화관광, 2010. 10월호.
- 이운영, 『콘텐츠 산업의 문화적 가치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 임학순, 「예술정책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의 경향과 과제」, 『문화정책논
총』 vol.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0.
- 이혜경, 「공공 예술지원과 예술의 공공성-영국의 경험」, 『문화정책논
총』 vol.1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1.
- 정갑영, 『문화와 사회발전의 관련성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4.
- 정광렬, 『예술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 전병태 외, 『예술지원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정책연
구원, 2005.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제도개선토론회 자료집, 2009.
- _____, 2006년 문예진흥기금사업종합운영평가보고서, 2007.
- _____, 2007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종합운영평가보고서, 2008.
- _____, 2008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종합운영평가보고서, 2009.
- _____, 2009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종합운영평가보고서, 2010.

- _____,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종합운영평가보고서, 2011.
- _____, 2011년도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 매뉴얼, 2011.
- Americans for the Arts, *Arts and Economic Prosperity: The Economic Impact on Nonprofit Organizations and Their Audiences*, 2003.
- Alan S. Brown & Associates LLC, "The Value Study: Rediscovering the Meaning and Value of Arts Participation", Connecticut Commission on Culture and Tourism, 2004.
- Arts Council England, *The Impact of the Arts: Some Research Evidence*, 2004.
- European Task force on Culture and Development, *In From the Margins: A Contribution to the Debate on Culture and Development in Europe*,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Strasbourg, 1997.
- O'brien, David. *Measuring the value of culture: a report to th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2010.
- PricewaterhouseCoopers, "Social and Economic Value of Public Libraries, Museums, Arts and Sport in Northern Ireland," *Research Report no. 1*, 2008.
- Madden, Christopher, *Using 'Economic' Impact Studies in Arts and cultural Advocacy: A cautionary note*, No.98, February 2001.
- McCarthy et al, *Gifts of the Muse, Reframing the Debate about the Benefits of the Arts*, RAND Corporation, 2004.
- Selwood, Sara, "Valuing Culture," *Valuing Culture*, London : Demos, 2003.

관련 웹사이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미국예술진흥기금 <http://www.nea.gov>

영국예술위원회 <http://www.artscouncil.org.uk>

일본국제교류기금 <http://www.jpf.go.jp/e/culture/index.html>

뉴욕주 예술위원회 <http://www.nysca.org>

오하이오주 예술위원회 <http://www.oac.state.oh.us>

ABSTRACT

A Study on Review Criteria and Evaluation Tools for Arts and Culture Grant Programs

Misook Choi

Art Management, Interdisciplinary Program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mand for improving efficiency and promoting responsibility in the use of public funds is a global trend. The arts and culture field is not an exception.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 principle of public interest and pursuit of efficiency often conflict with the intrinsic value of arts and culture. Such a dilemma is clearly revealed in arts and culture support programs.

Given the reality of Korea's arts and culture circle whose growth is heavily dependent on the government and public fund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government's support for the sector may have a significant potential impact on the landscape of the field. In this context, support projects that do not create

values in arts and culture have a potential to cause harm not only to the field but also to the public in general, the ultimate beneficiaries of such projects.

Korea's arts and culture circle had no experience in measuring the value and effects of arts and culture activities with its own consistent standards. Without proving their value and benefits, it is very difficult to deepen and expand discussions about them. Improving such support programs is not simply about upgrading the process of support projects, project structure, o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but about understanding the spreading effect of the value and effects of arts and culture, as well as about establishing paradig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pgrade the effectiveness of arts and culture support projects by advancing review criteria to select those project which can create more value and effects and by adopting effective measurement techniques in the respect of the creation of more value and effects. Through such efforts, it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maximiz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Culture and Art Promotion Fund.

Based on such a perspective, this study dealt with the Culture and Art Promotion Fund supplementary project operated by the Arts Council Korea and analyzed whether the project is based on the structure through which the effects of arts and culture can be achieved in terms of the creation of value and effects. In the second chapter, this study examined previous researches on values, effects, and influences of arts and culture and suggested a framework that divides effects into two categories: individual effects including mental and health, cognitive and interpersonal ones and social effects including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ones based on the framework of

individual and community impacts by Josua Guetzkow. Then in the third chapter, to see the effect creation of arts and culture, the Culture and Art Promotion Fund supplementary project operated by the Arts Council Korea was analyzed in terms of its screening and evaluation standards. Comparing Korea's case with the National Endowments for the Arts (NEA)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Arts Council England (ACE) of the U.K., this study pointed out that Korea's case is insufficient in creating values and effects in culture and art, and the needs to be changed in the fourth chapter.

Based on such findings, this study finally suggested a strategic performance management method for improving values and effects of arts and culture. It examined various theoretical discussions about evaluation and suggested that elaborate evaluative tools well-matched to the framework of individual and social effects discussed in chapter 1 are needed. It suggested Quality Adjusted Life Years(QALY) for mental and health effects; Audience Attitude Survey for cognitive and interpersonal effects; Economic Impact Analysis(EIA), Cognitive Valuation Methods(CVM), Choice Modelling(CM) and Travel Cost(TC) for economic effects; and Narrative Methods for cultural and social effects.

By doing so, I hope the study could contribute to maximizing value and effects of arts and culture to the individuals and the public thereby improving the efficiency and responsibility in the use of public funds for arts and culture in Korea.

Keywords : Arts and couture, Grant program, support, value, impact, effect, benefit, review criteria, screening, evaluation tool, valuation, NEA, ACE, Josua Guetzkow

Student Number : 2009-21317